

⑨ 불영사 국기 현판(佛影寺國忌懸板)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조선 후기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일을 기록한 현판이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기일에는 전국적으로 노래와 춤이 금지되었고, 지방 관료들은 일체 공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푸줏간에서 도살 행위도 일체 금지되었다. 이날 궁중에서는 국기제(國忌祭)가 거행되었고, 왕의 능침을 참배하는 의식이 실시되었다. 국기제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맡아 수행하였다.

불영사 국기 현판의 형태는 크기가 31×119cm인 세장방형이다. 검은색 바탕에 해서체 글씨를 세로로 음각하고 그 안에 흰색을 칠했다. 불영사 국기 현판에는 조선시대 제1대 왕인 태조부터 제17대 왕인 효종에 이르기까지 왕과 왕비의 기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판의 왼쪽 끝부분에 제18대 왕인 현종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판을 제작한 시기의 하한선은 현종이 타계한 후 숙종의 재위 기간인 1674~1720년으로 추정된다.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까지 기록된 불영사 국기 현판으로 볼 때, 불영사는 큰 재산을 하사한 인현왕후와 관련되어 왕실의 원당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패와 국기 등 주로 숙종대부터 왕실과 관련된 자료가 출현하는 점은 이러한 추정에 더욱 신빙성을 높여준다. 불영사 국기 현판은 울진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물로 조선시대에 불영사에서 행한 각종 불교 의식 및 불영사와 조선왕실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³⁰⁸

박병선

제4절 유교

1. 교육과 학문 성향

조선은 유교 통치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토대로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건국 초부터 농상(農桑)을 장려하고, 흥학(興學)하는

308.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국기 현판」, 『디지털중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었으며,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이것이었다.

조선 시대 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관학(官學)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했던 사학(私學)으로 나눌 수 있다. 관학은 국가의 기본 통치이념을 연구하고, 지방에 확산하여 모든 백성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국가 통치이념에 맞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관학은 수도 서울에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을 두었고, 지방 각 행정 단위에 향교(鄕校)를 설립하였다.

조선 개국초 고려의 성균관을 최고 학부로 삼다가 한양(漢陽)으로 천도한 후에 숭교방(崇教坊)에 성균관을 세웠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성균관이 불탔고, 현재의 성균관은 선조 34년에 개수된 것이다. 조선 시대 성균관의 교육 목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통치이념인 유교의 보급이고, 또 하나는 통치 체제에 필요한 고급 관리의 양성이다. 조선 시대 성균관의 교육 목적에 유교의 보급이 크게 강조된 것은 조선 왕조가 통치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한 데에 비롯된 것이다.

조선은 삼국시대 이후 1,000여 년간 국가의 지배 사상이며 민중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던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고, 국가 통치 질서를 근본으로 하여 모든 백성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이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사상의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통치이념인 유교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성균관을 비롯한 관학(官學)이었다. 성균관은 국가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다.

성균관에서는 대규모의 문묘(文廟)를 설치하여, 춘추 2회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유생들을 매월 초하룻날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자 예법에 따라 신규석전의(新規模釋奠儀)를 제정하여 제향에 임하게 했다. 이는 유생들이 유교의 성현을 제시함으로써 성현을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그 정신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균관의 석전제는 국가의 큰 행사로, 군왕을 비롯하여 대신들이 참여하고, 유생들의 참석은 필수적이었다. 성균관의 문묘와 석전제는 유교 국가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였다. 이전까지 국가와 왕실이 주도하는 주요 행사는 불교의 의식을 따랐던 것과 차이가 있다.

성균관의 교육은 유학 이념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서 관리로 등용하려는 것이었다. 성균관의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經典)과 제술(製述)이 기본 교과목이었다. 성균관의 교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유학 경전인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이었다. 이 사서오경을 각 과목에 따라 나누어 구재(九齋)를 만들어 교육했다. 구재는 성균관 유생이 먼저 대학재에 들어가 대학을 배우고 일정한 시험을 보아 합격하게 되면, 논어재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논어재·맹자재·중용재·예기재·춘추재·시재·서재·역재의 순으로 이수하는데, 그 예는 대학재에서 논어재로 오르는 것과 같다. 이 구재 과정의 성적을 명부에 적어 성균관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시험이 있으면 참조하여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의 교육 과정은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을 중요시하여 반드시 재(齋)에 기숙하고 식당에서 열좌회식(列座會食)하고 300일 이상 거관하여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운영 재원은 학전(學田)과 노비를 두었고 학생들의 식량 공급을 위하여 양현고(養賢庫)가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유생 수를 100명으로 줄였다.

사부 학당은 고려 후기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교육 기관으로 조선 시대에도 답습되었다. 사학(四學)은 중등 정도의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과 예속 관계에 있었으며 교육 방침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등은 성균관과 비슷했다. 명륜당과 동서 양제가 있었고 문묘는 없었다. 직제는 교수와 훈도를 두었으며 학생 정원은 100명이고 입학 자격은 양반의 자제로서 1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 정도는 낮으나 경전과 문예를 주로 하여 생진복시(生進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운영 재원은 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 임진왜란 때 재건되었다가 갑오경장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사학 유생들이 교육 목표는 성균관에 입학하는 것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사학 유생의 성균관 진학에 대한 규정은 조선 시대의 제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성균관의 관원이 사학에 나아가, 사학 유생으로 15세 이상이 되고 소학의 공을 성취한 사람에게 승보시를 보여, 합격한 사람을 성균관에 입학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이 승보시에 합격한 사람을 승보생이라고 하며, 이들은 성균관의 하재생이 되었다.

사학의 교육 방법은 주로 경서를 암기시키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읽은 글을 반드시 외울 수 있어야만 다음 글을 가르쳤다. 또한 5일마다 시험을 보여서 뜻이 통하지 않는 자는 벌을 주고 통한 자는 그 성적을 기입하였으며, 하나의 책을 다 읽으면 책부에 이를 기입하고 다음의 책을 주었다. 그리고 사학에는 유생의 학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내에서는 5일마다, 예조에서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였다. 예조에서 행하는 시험은 성적부에 기재되어 왕에게 보고되고, 이 성적은 유생이 응시하는 과거시험에 참고가 되었다.

조선 시대의 유학 교육을 위한 기구는 관학으로서 중앙에 성균관과 사학[사부학당 : 중·동·서·남부]을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학으로서 서원, 서당 등이 설치되어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교육은 대부분 양반 자제에 국한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대부의 자제는 대체로 칠·팔세가 되면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 들어가 초보적인 한문을 배우고 15·16세가 되면 중앙에는 사학, 지방에는 향교에 각각 입학하여 수학하고 과거의 소과에 응시하였다. 소과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게 된다. 성균관 유생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가 다시 대과에 응시하여 급등하면 비로소 고위 관직에 나갈 자격이 공인되며, 이것이 일반적인 정규 과정이다.

성균관은 중앙 정부에 직속된 최고의 학부로서 정치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면, 향교는 지방 군현에 소속되어 유학 정신과 유교적 윤리를 향촌 사회에 보급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 교육 기관이었다. 조선 시대에 전국에 향교를 확충·설치한 목적

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치 체제에 필요한 관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통치 체제의 정치 이념에 입각하여 백성을 교화하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유교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려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조선 시대의 유학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사학, 그리고 지방에 향교와 서원이 있었다. 불교 대신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려던 조선 왕조로서는 억불 숭유 사상의 형성장인 관립 유학 교육 기관을 어느 기관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상(農桑)’과 함께 ‘풍화지원(風化之源)’으로서의 유학 교육 기관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관립 학교 중에서 향교는 국가 통치의 기간 인재인 관료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교화 기관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관립 학교에서 유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에게 문과의 관문을 통과시켜 유교의 교양을 지닌 관료를 확보하였으며, 비록 과거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에 필요한 관료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향교에만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향교에 입적만 해 놓고 실제 과거 준비는 서당이나 사숙에서 하고 성균관을 통하여 문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때, 향교는 관료 자원의 양성보다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기능이 더 기대되었던 기관이다. 향교는 성균관과는 달리 전국의 각 지방에 산재해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민 문화의 심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불교 문화를 유교 문화로 대체하는 데 있어 향교 이상 좋은 수단은 없었다. 이 때문에 향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대하여 향교 교육의 성패를 지방 행정관의 진퇴를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정책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지방 수령의 기본 업무인 ‘수령칠사(守令七事)’에는 없었던 것이 조선 시대에 와서 삽입되었다. 조선 왕조가 향교에 걸었던 기대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령칠사 가운데 수명 학교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그 교육 내용 면에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태종 7년에 권근이 올린 글에서 소학을 가장 중요한 교과라고 하였다. “소학은 인륜 지도에 지극히 필요한 책이니 다른 어떤 책보다 먼저 익히며, 완전히 익힌 다음에 다른 책을 읽히도록 하며, 생원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을 통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향교가 민풍순화의 기능을 더 중요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향교 교육은 숭유주의(崇儒主義)에 입각한 인재 양성과 민풍순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교과에 있어서 유학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향교의 교과는 때에 따라 비중의 차이를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五經)·성리대전(性理大典)·삼강행실(三綱行實)·이륜행실(二倫行實)·효경(孝經)·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경서(經書)와 통감(通鑑), 송원절요(宋元節要) 등의 제사(諸史), 중국 한유(韓愈), 유종원(柳

宗元) 등의 선학(先學)의 제설(諸說), 향약(鄉約), 가례(家禮) 등이었다.

향교의 교육 일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향교 교육은 과거시험이 실시될 경우와 행사 기간 동안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가 있었다. 문헌상으로 보면 방학은 농번기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의 서원은 각 지방에 민간 중심으로 선현, 선사 및 선열(先烈) 의사(義士)에 대한 사묘(祠廟)를 설치하여 제향(祭享)을 행하고, 유학 교육을 통하여 유사를 양성하던 사립 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서원은 사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 기능과 강학소(講學所)를 중심으로 한 교학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닌 기관이다. 조선 시대 서원의 교육은 관학이 국가적 통제와 과거 준비에 편중되었던 것이 비하여, 학문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문 그 자체의 탐구와 연마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서원의 교육 목적은 국가에 필요한 선비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과거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선비는 성현의 교훈에 따라 엄치와 정의를 존중하고, 시비와 정사를 구별하며, 이를 지키는 도학적 성리학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뜻한다.

서원의 교과 내용은 유학의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서원의 교과는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입문으로 삼고,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기본으로 하였다. 독서의 순서는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춘추로 정하였다. 그리고 제사(諸史), 자집(子集)은 윤리와 관련하여 읽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필요한 사장(詞章)과 과거문(科擧文)도 읽도록 하였으나 그것은 이차적인 학습 활동이었다. 무성서원에서는 과거 준비를 하려면 반드시 타처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을 정도로 순수한 성리학을 강조하였다. 서원에서는 강독 이외에 제술과 습자도 아울러 익혔다. 제술에 있어 작문은 의리를 나타내는 본이 된다고 하며, 이단의 서적과 잡문은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습자는 해서를 원칙으로 하였다.

서원에서는 강(講)을 통하여 교수하였다. 강이란 학습한 문장을 소리 높여 읽고 의리를 묻고 답하는 교수 방법이다. 강을 통하여 학업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강은 매일 실시하는 석강(夕講), 열흘마다 실시하는 순강(旬講), 보름마다 실시하는 망강(望講), 매월 실시하는 월강(月講)으로 구별된다. 강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리(文理)를 터득하는 일에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암송이 끝난 다음에 전개되는 문답식의 교육 방법을 통하여 주입식이나 획일적인 학습을 피하고 능력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강을 통한 학업의 성적 평가는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불통(不通)의 4단계 평가, 또는 통(通)·약(略)·조(粗)·불(不)의 4단계 평가로 이루어졌다.

서당은 글방, 서재, 서방, 책방이라고 불리었던 민간의 교육 기관이다. 서당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특히 발달한 초등 교육 기관으로, 그 연원은 멀리 삼국 시대로 소급된다. 서당은 고구려의 사설 교육 기관인 경당(扁堂)에서 비롯된다. 경당을 서당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경당이 사설 교육 기관으로 일반 서민의 자제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맥

락에서이다.

서당의 교육적인 성격을 보면, 첫째로 교육 제도상에서는 초등 교육 단계이며, 둘째로 교육 내용에서는 유학을 기초로 교육하는 학교이며, 셋째로 학교 운영에서는 사설 교육 기관이며, 넷째로 교육의 기능면에서는 지역 사회의 교화의 중심지였으며, 다섯째로, 학교에 향사(享祠)가 없었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처음에는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강독의 내용은 처음에는 천자문(千字文)이나 유합(類合)으로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소학(小學)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통감(通鑑)·사서삼경(四書三經)·사기(史記)·당송문(唐宋文) 당률(當律)로 나아갔다. 서당의 규모나 훈장의 학식의 수준에 따라 춘추(春秋)·예기(禮記)·근사록(近思錄) 등을 읽히도록 하였다. 서당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개별 교수법에 의존하였다. 강독·제술·습자가 모두 개별 교수로 진행되었다.

잡과(雜科)의 교육은 유학(儒學) 교육을 제외한 외국어 교육·의학 교육·무과 교육·음악 교육·미술 교육·천문학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의미한다. 잡과 교육은 국가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실용 기술직 관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실시하였다. 잡과 교육은 실무를 맡는 하급 관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잡과 교육은 조선이 유학을 숭상하고 문치주의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유학 교육에 비하면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데는 중요한 분야였다.

조선의 정치 체제는 양반의 관료 체제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는 과거(科擧)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조선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를 통하여서만 양반이 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의 관료는 대체로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조선 시대의 과거시험은 그 운영이나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조선 시대 과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무(文武)의 양과를 균형있게 운영한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에 무과가 없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문과와 무과를 실시함으로써, 문무 양반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둘째, 생원시(生員試)의 중시이다. 조선의 건국에 공헌한 신진 유학자들은 고려 시대의 유풍인 사창(詞章) 중시의 진사시(進士試)를 억제하고 유학의 경전을 외우는 생원시를 중시하였다. 주자학이 도입된 뒤 유학의 경향이 사창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 추세는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는 관학(官學)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관학 부흥 운동은 고려 말기에 일어났다. 조선에 와서 이 운동은 더욱 촉진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성균관에 재학해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의 교육 체제는 국가의 지도 이념인 유학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체제로서,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농상(農桑)의 장려’와 ‘흥학(興學)’을 국가의

2대 치국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흥학은 유학으로 민풍을 순화하고, 정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를 지향하는 삼대(三代)의 이상적인 도덕 국가를 건설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에 공헌이 큰 유현을 제향하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학교에는 문묘(文廟) 혹은 사묘(祠廟)를 두고, 여기에 제향하는 것을 필수적인 행사로 하였다. 특히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와 같은 관학에서는 문묘에 대한 제향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개인들이 설립한 서원(書院)에도 사묘를 두어 유현(儒賢)을 제향하였다. 학교는 법성현(法聖賢)을 교육 목적으로 추구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유학의 경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서와 문학서가 있었다. 조선의 교육 체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울진군에도 울진 향교와 평해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고, 9개의 서원이 설립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면 선현 존경과 후진 장학을 위한 군민들의 교육적 노력을 찾아볼 수 있고, 서민들의 자제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교육열을 짐작하게 한다.

2. 향교와 관학(官學)

1) 울진향교

울진향교는 울진읍 옥계동에 있다. 대성전은 1484년(성종 15)에 읍내리 월변동(月邊洞)에 세웠다. 1697년(숙종 23) 고성리(古城里) 성저동(城底洞)으로 이건하였고, 1872년(고종 9)에 지금의 읍내리 옥계동으로 이전하였다.

울진향교는 한국전쟁 때 대성전과 동재(東齋)를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 1980년 중창하였고, 대성전·내삼문·명륜당 순서로 배치하였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고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이다. 전면에 개방된 전퇴를 두고 내부는 통간으로 바닥에 전돌을 깔았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2007년 11월, 대성전의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상량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1622년과 1795년에 중수하였다. 1864년에 이건하고, 중수하였고, 1872년에 다시 중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上樑文

伏以興儒化於十室鄉遷學舍而草舊尊聖人於萬世土修宮墻而復新擇美里於上仁建大宇於中正念縣學僻處於左瀝而儒術不振於右文時值亭午世唐虞固無遺賢之野壤接君子鄉鄒魯奈罕選士之升庠每當朔望朝焚香迺審殿廡址立臬甲子之修築疏忽歷四候而縱勤於殫誠寅申之位向傾斜在一日而未妥於暫奉階級懸壁享儀幾失於降升地局墜坑文風難望於來復凡所指點之地尙切行路人久歎其在首教之治寧緩字牧官先務

遂相茲土爰契我龜地名也 庠序堂兆已叶於蹟素天作乎臺隍麓理終 箸於鉤玄南望之佳
氣蔥籠雲興霞蔚北馳 之淑靈蜿蜒嶽貢川珍自冬傳詢丁當之士 論聳發不日經始子來之
民力歡逐架壇杏 於椽欒煥命新制斷庭柏於棟宇永壯宏規 窺數仞而見百官恍攝齊於堂
室設四科而 侍十哲儼對越於後先茲將柳廟之大修庸 揭益碑之善頌兒郎偉拋樑東一泓
滄海翠 浮空乘桴聖輶知何適由也從時恨未同兒 郎偉拋樑西十二青山勢不底寄語諸君
須進步莫 一簣半塗迷兒郎偉拋樑南翠雲 亭外積晴嵐應知才德從今出不信須看淑 氣涵
兒郎偉拋樑北道山來水流無息欲尋 此理入源頭活潑元從群聖域兒郎偉拋樑 上一太極
高元氣釀與合四時造化工縱如 摩詰圖難狀兒郎偉拋樑下匝地閭閻通大 野太古山中樸
素風戶絃家誦興文雅伏願 上樑之後師門進益士林改觀夏曰校周曰 庠凡俊皆入齊一變
魯一至斯道復明

崇禎紀元後五壬申孟夏上澣

通政大夫行蔚珍縣令商山黃鎮奎撰

後學仙槎林檉書

대성전상량문(大成殿上樑文)

작은 마을에 유학의 교화가 일어나 고을 향교에 옮겨져 옛 성현들의 학문이 만세에
초가 되어 선비들이 궁장에서 수학하여 새롭게 함에 마을에서 제일 좋은 곳을 택하여
큰집을 중정에 세워 인으로 한다.

울진현은 동해 바닷가[左瀕] 후미진 곳이라 학업이 영서[右文]학문에 떨치지 못했
음을 생각해 본다. 요순 때에는 초야에 묻혀 있는 현인들을 버려두어 없었다. 공자 맹자
때에 접하여는 이에 선비를 뽑아 올린 향교가 드물었다.

매월 삭망 아침 분향 때에 대성전 터를 살펴보니 갑자년에 수축하여 세운 것을 소홀
히 하여 사계절이 지나도록 성의가 없어 신향(申向)[서남]으로 기울어져 하루도 편치 않
아 잠시 계단을 달아 위패를 봉안하였으니 벽향(壁享)의 의례 거의 잃어 울퉁불퉁한 터
의 형편과 떨어져 문헌 문풍(文風)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곳은 모두가 지점한 땅인바 일찍이 행인들도 오래도록 감탄하며 거기에는 교화
로 다스림의 중심이 있었다 한다.

선정[寧緩]을 베푸는 목민관은 먼저 할 일이라 마침내 이곳을 자세히 보고 다짐하
여 말했다. 내가 지명을 점쳐보니 학교 강당의 징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취라 “본시
하늘이 지은 것이 아닐까” 라 하였다.

언덕과 도랑과 기슭의 자리는 현묘한 도리를 탐구하는 곳으로 다 갖추었다.

남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기운 맑고 푸른 기운이 일고 서광이 울연하며 북에서 달려
내린 신령하고 생동 있는 산악은 공천(貢川) 산 같이 상서롭다.

겨울부터 뜻 있는 선비들의 논의를 일으켜 하루를 지나지 않아 비로소 자제들이 모여 온 민력으로 기꺼이 제단을 옮겨 설치하니 은행나무 서까래와 마루를 새로 하고 잣나무로 기둥을 세우니 영원히 웅장한 규모라 조용히 걷는 백관들의 환영과 옷자락을 걷어잡고 서 있는 듯한 마루가 나타난다.

네 과를 설치하여 십철(十哲)을 모시고 엄전히 문왕의 덕[對越]이 후대에 짝[配]을 이루니 이에 장차 장엄한 문묘로서 크게 수선되었다.

백성의 공적을 드러내어 더욱 기념비적으로 그 선을 칭송한다.

후배들아 눈을 들어 동으로 보라! 푸른 창해 펼쳐져 배를 탄 성인들 자취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시세를 좇아 예와 같지 아니함이 한이로다.

후배들아 눈을 들어 서를 보라! 열두 청산의 지세 낮지 않다. 제군들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되 한 삼태기 반의 흐리멍텅 말라.

후배들아 눈을 들어 남으로 보라! 취운정 바깥 넘어 남수산 맑은 정기 이제부터 지(知)·재(才)·덕(德)이 나올 것이니 불신커든 모름지기 맑은 기운 함축됨을 보라.

후배들아 눈을 들어 북으로 보라! 내려온 산맥과 흐르는 물 끊이지 않으니 이곳 지리를 살펴보건대 근원은 깊고 끝머리는 활발하여 선대부터 여러 성인의 성역이로다.

후배들아 눈을 들어 위로 보라! 한없이 높은 원기 쌓이어 사시(四時)에 부합되고 조화로운 공교 치밀한 국세 왕성한 형상이다.

후배들아 아래를 보라! 지역의 여염거리 큰 들에 통하고 태고 산중 질박한 맑은 바람은 문풍지를 울려 글 외는 소리 우아한 풍류로다.

원컨대 뒤를 보라! 스승의 문하에 더 많은 사람이 관념을 새롭게 한다. 하(夏)나라에서는 교(校)라 하고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했다. 존재들이 모두 입교하여 일제히 노(魯)나라의 예로 변화하고 일제히 유학의 도에 이르러 다시 밝게 깨닫기 바라노라.

송정기원후오임신맹하상한(崇禎紀元後五壬申孟夏上澣(1872))

통정대부행울진현령상산황진규찬(通政大夫行蔚珍縣令商山黃鎮奎撰)

후학선사임역서(後學仙槎林檎書)

훈사절목

- 본 고을 6개 면에서 각기 훈장으로 합당한 자 두 명을 뽑아서 훈회(訓誨)의 임무를 맡긴다. 근남면과 하현내면은 선비의 수가 적으므로 각기 훈장 한 명을 뽑는다.

- 각 면 훈장은 공론에 따라 향내외(鄉內外)를 논하지 말고 각 면의 유사(儒士)를 뽑아서 향교의 청금록(靑衿錄)과 비슷한 안(案)을 만들어 동몽(童蒙)은 8세에서 12세까지 재주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抄錄)한다. 관자(冠者) 이상은 공부할 뜻이 있는 경우만 뽑아서 안에 기록한다.

- 대개 가르치는 방법은 동몽인즉 각 면 훈장에게서 날마다 배우게 하고 관자 이상은 관전에서 혹 시험 삼아 혹은 배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게 함으로써 공부에 힘쓰도록 한다.

- 현령이 시제통독(詩題通讀)할 때에 동몽(童蒙)과 관자(冠者)가 모두 모이면 동몽은 각 후장이 데리고 온다. 제술(製述)은 관자가 시(詩)·부(賦)·의의(疑義) 혹은 책(策)이나 논(論)으로 하고, 동몽은 고풍(古風)이나 소시(小詩) 혹은 연구(聯句)로 시험한다. 통독은 사서삼경(四書三經)·소학(小學)·심경(心經) 등 원하는 것에 따라 통독하게 한다. 동몽은 각 훈장에게 배운 책을 현령 앞에서 능부(能否)와 근만(勤慢)으로 고강(考講)한다.

- 현령이 시제 통독하는 규정은 매월 삭망에 정식으로 거행하나 비록 삭망이 아니더라도 무고일(無故日)에 거행한다.

- 동몽이 배우는 책은 혹 사략(史略)·소학(小學)·동몽선습(童蒙先習)·효경(孝經) 등으로 하고, 사서삼경 중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는 이 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 현령이 행하는 제술시강(製述試講)은 그 능부(能否)를 고강하여 상벌(賞罰)한다.

- 안(案)을 작성한 후에 동몽이 훈장에게 배우는 것을 꺼리고 관자(冠者)가 관원 앞에서 시예(試藝)하는 것을 싫어하면 조사해서 중벌로 다스린다.

- 각 면 훈장 중에서 혹 게을리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 마땅히 중벌로 다스리고, 진심으로 가르쳐 성과가 있으면 마땅히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조정에 천거하도록 한다.



<그림 47> 울진향교 석전대제(2016년 3월 16일)

<표 164> 울진향교 역대 전교 명단

대수	성명	한자	본관	임명년도	비고
1대	남상규	南相奎	영양	1909	호 우산(愚山)
2대	주경순	朱景舜	신안	1910	
3대	임유정	林有挺	예천	1916	호 만오(晩悟)
4대	남석화	南錫和	영양	1920	
5대	장필수	張必壽	울진	1929	호 만회(晩悔)
6대	임원화	林元華	예천	1939	호 일산(逸山)
7대	장보영	張普永	울진	1942	호 죽사(竹史)
8대	주석준	朱錫峻	신안	1946	
9대	전세호	田世浩	담양	1946	
10대	전광호	田光瑚	담양	1948	
11대	남부년	南富年	영양	1952	
12대	임시호	林時虎	예천	1953	
13대	장필상	張必祥	울진	1955	
14대	주인원	朱仁源	신안	1955	
15대	최중태	崔重台	강릉	1955	
16대	이윤재	李潤在	경주	1956	
17대	전병주	田炳宙	담양	1956	
18대	장필용	張必龍	울진	1957	
19대	남강년	南康年	영양	1958	
20대	전학수	田鶴秀	담양	1959	
21대	김복규	金復圭	안동	1960	
22대	전인석	田仁錫	담양	1961	
23대	장 림	張 霖	울진	1961	
24대	주호영	朱虎英	신안	1962	
25대	임시원	林時元	예천	1962	
26대	남주석	南周錫	영양	1962	
27대	윤락규	尹洛達	파평	1962	
28대	장화영	張華永	안동	1963	
29대	장용한	張龍漢	울진	1965	
30대	전상태	全相泰	정선	1966	
31대	남만규	南萬奎	영양	1966	

대수	성명	한자	본관	임명년도	비고
32대	장진택	張軫澤	울진	1967	
33대	남용극	南容克	영양	1968	
34대	남도원	南道源	영양	1969	
35대	주병준	朱秉俊	신안	1970	
36대	주병응	朱秉應	신안	1971	
37대	전일중	田一重	담양	1972	
38대	주병남	朱秉南	신안	1972	
39대	전병규	田炳奎	담양	1973	
40대	심상렬	沈相烈	삼척	1974	
41대	사창업	史昌業	청주	1975	
42대	전중근	田重根	담양	1976	
43대	남재택	南載澤	영양	1976	
44대	주범중	朱範中	신안	1977	
45대	남광렬	南光烈	영양	1979	
46대	전기순	全基舜	정선	1981	
47대	주재덕	朱在德	신안	1983	
48대	장철수	張轍洙	울진	1985	
49대	전광한	田光漢	담양	1987	
50대	주하영	朱廈英	신안	1988	
51대	남효중	南孝重	영양	1990	
52대	장일천	張日天	울진	1993	
53대	남도진	南道鎭	영양	1996	
54대	주장환	朱章煥	신안	1999	
55대	장영오	張永五	울진	2000	
56대	전병강	田炳彊	담양	2001	
57대	남호열	南鎬烈	영양	2003	
58대	장형구	張炯九	울진	2005	
59대	주성하	朱聖河	신안	2007	
60대	전하진	田河珍	담양	2008	
61대	최연국	崔蓮國	강릉	2009	
62대	남석우	南碩祐	의령	2011	
63대	전일중	田一重	담양	2013	

대수	성명	한자	본관	임명년도	비고
64대	남경탁	南庚鐸	영양	2015	
65대	윤근오	尹根晤	파평	2017	
66대	노만성	盧萬成	광산	2019	
67대	장국중	張國重	울진	2021	

※ 성씨별(67대) : 남 15, 장 13, 주 12, 임 4, 전(田) 12, 최 2, 이 1, 김 1, 윤 2, 심 1, 사 1, 전(全) 2, 노 1
본 전교명단은 울진향교에서 보내 온 자료이다.

2) 평해향교

평해향교는 평해읍사무소 우측 뒤 언덕에 있다. 1357년(공민왕 6)에 창건하고, 1407년(태종 7)에 옮겨 세웠다. 이후 1474년(성종 5)에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1612년(광해군 4)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 중건, 보수하였다. 급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대성전(大成殿)을 제일 높은 곳에 배치하고 내삼문·명륜당·태화루·외삼문을 일직선축으로 배치하였다. 태화루(太和樓) 아래는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는 13기의 조선 시대 선정비가 나란히 서 있다.



<그림 48> 평해향교



<그림 49> 평해향교 태화루



<그림 50> 2018년 7월 23일 평해향교 고유례

평해향교 대성전 상량문 숙종 신미년(1691)

도(道)는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아 성궁(聖宮)이 거듭 새로워지기를 기약하였고, 사업은 백 년을 기다림이 있어 신령한 터가 오래도록 감추어진 후에 드러났으니,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령께서 스스로 여신 것이로다. 생각건대, 우리 기성(箕城)은 실로 이름난 고장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천 리나 되고 삼신산(三神山)인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이 가까이 있어 비록 바닷가 먼 골짜기지만 영동(嶺東)에서 가장 경치 뛰어난 곳이라 일컫네.

군이 된 지는 먼 옛날 신라 고려 때부터이며, 향교를 세워 추로(皐魯)의 교화를 골고루 입어 제사의 의식에 질서가 있고 시례(詩禮)의 교육이 무궁하여 풍속 교화가 한 고을에 무젓고 외진 고을에도 이루어졌네.

문헌이 부족하여 전날의 미덕을 징험할 수 없어 애석하였으나 명망 있는 선비가 번갈아 중엽에 흥성하여 불만하였으니, 오산(五山)과 어깨를 나란히 한 호탕한 대해(大海)의 문장과 필운(弼雲)과 앞 다투어 뛰어난 월헌(月軒)의 도량이 있었다네. 관령(關嶺)에서 뛰어난 명성 전파됨이 거의 이에서부터 이어졌고, 동남(東南)에서 화려한 명성 드러났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러 없어져 버렸는가?

관직이 끊이지 않던 곳이 점점 변하여 풍속이 퇴락한 지방이 되었고, 영령이 빼어난 고을이 천황(天荒)한 땅이 되었네. 과거(科擧)와 명성이 함께 끊어졌으니, 하물며 벼슬이 드러남을 바라겠는가? 적적하게 백여 년이 흘렀으니 한 번의 쇠퇴함이 어찌 그리 오래던가? 돌아보건대 이는 성묘가 없는 바이니, 진실로 어진 선비가 관계된 바이로다.

땅의 정기는 과거와 현재에 성하고 쇠퇴함이 있고, 인물도 고금(古今)에 흥하고 쇠퇴함이 있다네. 노(魯)나라의 규례는 오래도록 지키지 못하여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모하였고, 한나라 제도가 어느덧 마땅한 것 같아 모두 한마음으로 입을 모으네.

봉우리에 오르고 들판에 내려와 산천의 형세를 두루 관찰하였고, 규(圭)를 세워 해

와 달의 그림자를 측량하여 음양의 마땅함을 두루 살펴 중정(中正)의 온화한 터를 얻으니 맑고 맑은 기운이 모인 곳이라네. 들은 삼성산(三聖山) 앞에 흰하게 트여 아득히 십리의 평원을 이루었고, 강은 팔선대(八仙臺) 아래를 따라 세차게 흘러 한줄기 맑은 강을 이루었네. 하늘과 땅이 만들고 감추어 몇 년이 지나도록 깊이 비밀로 하였고, 귀신이 아끼고 보호하여 오늘을 기다려 비로소 드러내었다네.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여러 사람의 말을 따라 경영하여 시작하기를 서두르지 말도록 하였으나, 이에 도모하고 헤아려 이곳에 거주하였다네.

그러나 정성을 다하고 두루 돌아다니는 부지런함은 일꾼들에게서 말미암고,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임무는 실로 어진 수령에게서 바탕하였다네. 관리와 조정이 동해 해변을 중히 여기고 칠 년 동안 마음을 다하여 더욱 학교의 부흥에 힘쓰니, 흔쾌히 훌륭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따라 먼저 화려한 사당을 짓기 시작하였네.

드디어 봄·여름·가을 세 농사철을 피하여 날을 잡아 시월 초하룻날 들보를 올리려 하고, 관리가 녹봉을 내어 공사를 돕고 주민이 부지런히 도와 일을 추진하였네. 신보(新甫)의 잣나무와 조래(徂徠)의 소나무를 옮기고 잘라 공수(公輸)의 재주로 지으니 서까래 길기도 하며 기둥은 크기도 하네. 유전유한(有傳有閑) 거둬 갈고 깎아내어 치밀하고 정밀함이 지극하고 다섯 칸 칠포(七苞) 또한 제도의 갖춤을 다하였네. 나무를 맞물리고 흙을 다져 처음부터 진실로 합당하고 진실로 완전함을 바랐고, 건설하고 치밀하게 하여 마침내 성대하고 아름다움을 다하였네.

진실로 성령께서 편안히 계실 곳이며 선비들이 우러르는 곳이다. 무릇 누구나 “옛날대로 따름이 어떠한가?” 하니 이 어찌 새롭고 매우 크다 하지 않겠는가? 사방의 부로(父老)들이 동우(棟宇)를 우러러 다시 보며, 백 리의 유생들이 담장을 바라보며 얼굴을 변할 것이다. 천운이 순환하여 다시 옴을 알겠고, 지령이 밝게 드러나 부르지 않아도 절로 옴을 보겠네.

아, 그대들이여! 어찌 각자 힘쓰지 않겠는가? 아, 천만 년 오래갈 것이다. 기쁨이 이미 한 고을에 넘쳐나고, 축하가 어찌 육방에 관계되는가? 보잘것없는 글을 지어 감히 송덕(頌德)을 칭송하노라.

(떡을) 대들보 동쪽에 던지노니

월송정 아래는 큰 바다에 다다랐네.

성인 도의 무궁한 것을 알고자 하면

푸른 물결 멀리 넓음을 볼지니라.

대들보 서쪽에 던지노니

백암산(白巖山) 우뚝하여 하늘과 나란하네. 아득히 높은 기상(氣像) 우러르는 듯하고 사만(四萬) 하늘의 별이 도리어 낮게 바라보이네.

대들보 남쪽에 던지노니
 청학산(靑鶴山) 빛이 쪽같이 푸르네.
 토담을 대하고 서지 말게나
 햇빛 드는 빈 창에 맑은 기운 투명하네.
 대들보 북쪽에 던지노니
 현란한 못 별들이 북극에 둘러 있네.
 내 원하노니 성명의 덕스런 다스림을 닦아
 모든 백성 이로부터 나라로 향하리라.
 대들보 위로 던지노니
 중천의 백일은 어찌 그리 밝고 밝은가.
 잔 티끌도 일지 않고 한 점 구름도 없으니
 정녕 내 마음이 본디 밝음을 보겠네.
 끝없는 긴 장이 큰 들을 갈라놓았네.
 대들보 아래로 던지노니
 끝없는 긴 강이 큰 들을 갈라놓았네.
 냇가에 성현의 탄식 다시 모임이 없으리니
 지난날에 떠난 것도 이와 같으리라.

삼가 원컨대 상량한 뒤에는 험난함을 쓸어 빨리 형통(亨通)함을 회복하리라. 팔방의 신들이 모두 보호하여 성현의 가르침으로 도와서 새롭게 하옵고, 모든 명령께서 일어나 상서로움을 내리시어 낡은 풍습을 바꾸게 하옵소서. 이에 바닷가 땅이 수사(洙泗)의 고을로 크게 변하여 가을·겨울에는 예(禮)와 시(詩)를 부지런히 하고 봄·여름에는 현송(絃誦)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로다.

명심하고 뜻을 가다듬어 군자의 장에 들어가기를 기약할진대, 남의 글귀를 따서 글을 짓고 과거 보는 선비의 공부만을 익히겠는가? 성현을 바랄 것이니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함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며, 공자를 배우고 안연을 배울지니 그 사람도 사나이이고 나도 사나이이니, 어찌 배우지 않겠는가.

함양 후인 울산부사 박신지 씀.

평해향교 이건 기문(平海鄕校移建記)

성인이 천하에 있음은 원기(元氣)가 천지에 있는 것과 같다. 성인이 교화가 밝아서 백성이 인륜을 펼치고, 원기가 있어 백성이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나 배우고 가르치며 강론하지 않음은 특히 백성의 우환이 되어 원기의 병통보다 심함이 있다. 원기의 성쇠

(盛衰)는 하늘에도 관계되고 배우고 가르침의 어둡고 밝음은 하늘에 있는데,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겠는가?

본 군의 향교는 터가 낮고 또한 서쪽 시냇물이 곧바로 쏟아지는 곳에 있다. 지난번 큰 홍수를 겪으면서 더욱 물이 스며들어 궁장(宮牆)이 무너지고, 기둥이 기울어 고을의 선비들이 모두 한탄하며 이건을 도모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수령 하용갑(河龍甲)이 부임하여 이곳 교궁의 일에 관심을 두었고, 마침 순찰사 김공이 순찰함에 이르렀다.

고을의 사문(斯文)들이 서로 더불어 이건을 건의하고, 옛 향교의 곁에 터를 잡아 2월 상순에 일을 시작하여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고을 안 선비들이 각자의 힘으로 공사에 달려나가 한 달이 되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다시 제생들을 모아 그 가운데서 읍양(揖讓)과 강독(講讀)을 행하니, 무릇 한 구역의 뛰어난 인재들이 누각에 모두 모였다. 책상 위의 품은 도량 넓어 하늘과 같이 넓고, 그곳에서 노닐고 쉬이 즐겁도다. 학문을 연마하여 서로 돕고 함께하니 그 공이 적지 않다.

낙성(落成)하는 날 사림(士林)에서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하기를 청하기에 내 아뢰기를 “성문(聖門)의 가르침에 순서가 있으니,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젊은이들에게 전한 후에 멀리 있는 사람과 큰 사람에게 이르며,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부터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에 이른다. 안으로 형을 잘 섬기고 밖으로 어른을 잘 섬기며, 위로는 갈 곳이 없어 다하지 못하니 내 직분의 마땅한 것을 한다면 인륜이 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져 교화가 행하여지고 민덕(民德)이 두터워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인재는 나라의 명맥이며, 성인의 교화는 인재의 원기이다. 지금 수령이 인재를 만들고 원기를 양성함 또한 왕의 교화를 돕는 것이니, 성인의 가르침을 숭상함이 그 근본을 알겠도다.

1659년 영릉(寧陵) 효종(孝宗) 10년 해헌(懈軒) 황명하(黃命河) 삼가 기록한다.

평해향교 이건 기문을 작성한 황명하(黃命河)[1651~1715]는 본관은 평해(平海)이고, 자는 자윤(子潤), 호는 해헌(懈軒)이다. 울진(蔚珍)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황석건(黃石建)이고 어머니는 권시경(權是經)의 딸이다. 평해로 귀양 온 강석규(姜錫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유고로 7권 3책의 시문집 『해헌집(懈軒集)』이 전한다. 문집 가운데 주목할 작품으로는, 사가(史家)들조차 자신이 속한 당파의 당리당락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는 폐단을 지적한 황명하(黃命河)의 『열성조실록(列聖祖實錄)』의 서문 「해당야사서(懈堂野史序)」와 흥년을 극복할 대책 열 가지를 써서 관찰사에게 올린 「정순상문(呈巡相文)」이 있으며, 이 외에 「정진홀청도제조장(呈賑恤廳都提調狀)」·「유대관령숙오봉서원(遊大關嶺宿五峰書院)」·「영산십영(英山十詠)」 등이 있다.

평해향교 옛 토지 절목[舊土地節目]

위의 절목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이다. 무릇 교궁(校宮)에 전답을 두는 것은 많은 선비가 성묘를 보호하는 자본이며 집임(執任)과 거재(居齋)의 비용이다. 관리가 부임한 몇 날 동안 많은 고을 업무를 차례로 실행하여 나갈 때에 그 전답의 근거를 탐문하는데, 혹은 포구에 늘어서 있으나 갈지 않는 것이 있고, 혹은 마음대로 이용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옛날 토지를 둔 본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으며, 후래에 더욱 멀어지는 도리(道理)에 과연 이와 같아서 되겠는가? 이에 바로잡아 규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감색(監色)을 정하고, 창고를 세어 일일이 살핀 후 두락 수와 건(件)을 기록하여 곡식과 돈의 양을 분별하고 마땅하게 결정하였다.

곡식은 배삭(排朔)하여 집임의 초하루 보름 분향(焚香) 때 식료전(食料錢)으로 하고, 또한 배삭보다 초하루 보름 분향 비용이 만일 더 쓰는 폐단이 있으면 배정한 수 외에 부족한 조목은 마땅히 당시 집임에게 책임진다. 그러면 집임은 정해진 수보다 더 쓰는 한탄이 없고 향교 토지는 영원히 보전하는 계책이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에 토지가 있는 지명(地名)과 전답의 마지기 수와 전곡(錢穀)의 등급을 나누어 매겨 비용이 드는 달수를 헤아려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뒤에 기록하여 절목을 만들어 이후에라도 영구히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무술년 3월.

2) 서원과 사학(私學)

(1) 고산서원(孤山書院)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 있는 서원이다. 1628년(인조 6) 임유후가 세운 고산정에서 비롯되었다. 임유후(任有後)[1601~1673]는 집안의 재앙을 만나 이곳에 내려와 고산(孤山) 위에 정사를 짓고 20여 년간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였다. 그런 그가 죽자 제자들이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고산사(孤山祠)를 건립하여 그를 추모하였다.

그 뒤 이곳의 현령으로 부임한 오도일(吳道一)은 1686년(숙종 12) 김시습(金時習)이 자주 다녀간 행곡리 주천대(酒泉臺)에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동봉별묘(東峰別廟)를 세우고 구암사(龜巖祠)라 하였다. 그 당시 현령에게 아첨하는 자가 있어 재임 당시인 1693년 오도일의 생사(生祠)를 지었다. 오도일 사후에 지역 사람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여 별도의 사당을 세웠다. 이후에 이 세 사당을 합하여 동봉묘(東峰廟)라고 하였다.

그가 죽은 뒤 1715년(숙종 41) ‘孤山(고산)’이라는 사액을 받고 고산서원으로 승격되어 김시습·임유후·오도일을 합향하였다. 울진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서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1868년(고종 5) 훼손되었고, 복원하지 못하였다. 위패는 땅에다 묻었으며 학위전(學位田)은 향교에 헌납하였다. 현재 서원 터에는 유허비만 남아 있다. 『전고대방(典故大方)』에 의하면

고산서원은 구암서원(龜巖書院)과 일원양우(一院兩宇)라 되어 있다. 이 서원이 훼손되기 전 경내의 건물로는 묘우인 고산사와 강당·신문·동재·서재·정문·전사청(奠祀廳)·주소(廚所) 등이 있었다. 매년 4월 15일에 향사를 지낸다.

제향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시습(金時) [435~1493]은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증조부 김윤주(金允柱)는 안주목사(安州牧使), 할아버지 김겸간(金謙侃)은 오위부장(五衛部將), 아버지 김일성(金日省)은 음보(蔭補)로 충순위(忠順衛)를 지냈으며, 그의 어머니는 올진 선사 장씨(仙槎張氏)이다.

김시습은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다. 1437년(세종 19) 3살 때부터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정속(正俗)』·『유학자설(幼學字說)』·『소학(小學)』을 배운 후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그가 신동(神童)이라는 소문이 국왕 세종에게까지 알려졌다. 세종이 승지를 시켜 시험을 해보고는 장차 크게 쓸 재목이니 열심히 공부 하라고 당부하고 선물을 내렸다고 하여 ‘오세(五歲, 5세)’라는 별호를 얻게 되었다.

5세인 1439년(세종 21)에는 이웃집에 살고 있던 예문관 수찬(修撰) 이계전(李季甸)에게 『중용』과 『대학』을 배웠고, 이후 13세인 1447년(세종 29)까지 이웃집의 성균관 대사성 김반(金泮)에게 『맹자』·『시경』·『서경』을 배웠고, 검사성 윤상(尹祥)에게 『주역』·『예기』를 배웠다.

1449년(세종 31)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여 15세에 외가의 농장 곁에 있는 무덤 앞에서 여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다. 이 무렵 그는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 남효례(南孝禮)의 딸과 혼인하였다. 18세에 송광사에서 불교에 입문하였고, 이후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로 들어가 공부하였다. 21세 때인 1455년(세조 1) 계유정난(癸酉靖難)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을 하고 보던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산사를 떠나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람에 주섬주섬 담아가다가 노량진 가에 임시 매장한 사람이 바로 김시습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후 그는 관서지방을 유람하며 역사의 고적을 찾고 산천을 보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이는 『매월당집』에 『탕유관서록(宕遊關西錄)』으로 남아 있다.

그가 쓴 발문에서 방랑을 시작한 동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질탕(跌宕)하여 명리(名利)를 즐겨하지 않고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여, 다만 청빈하게 뜻을 지키는 것이 포부였다. 본디 산수를 찾아 방랑하고자 하여, 좋은 경치를 만나면 이를 시로 읊조리며 즐기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하였지만, 문장으로 관직에 오르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하루는 홀연히 감개한 일을 당하여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道)를 행할 수 있는데도 출사하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고 적었다.

26세 때인 1460년(세조 6)에 관동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아 『탕유관동록(宕遊關東錄)』을 엮었고, 29세인 1463년(세조 9) 때에는 호남지방을 유람하여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을 엮었다. 그해 가을 서울에 갔다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권유로 세조의 불경언해사업(佛經諺解事業)에 참가하여, 잠시 내불당에 거처하였다.

31세 때인 1465년(세조 11) 봄에 경주로 내려가 경주의 금오산(金鰲山)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칩거하였다. 이때 매월당이란 호를 사용하였다. 이곳에서 31세(1465) 때부터 37세(1471)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알려진 『금오신화』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다.

1471년(성종 2) 37세에 서울로 올라와 이듬해 성동(城東) 폭천정사(瀑泉精舍), 수락산 수락정사(水落精舍) 등지에서 10여 년을 생활하였다. 1481년(성종 12) 47세에 환속하는 듯하였으나, 이듬해 ‘폐비윤씨사건(廢妃尹氏事件)’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지방 등지로 방랑의 길에 나섰다. 당시 양양부사(襄陽府使)였던 유자한(柳自漢)과 교분이 깊어 서신 왕래가 많았으며, 강릉·양양·설악 등지를 두루 여행하였다. 『관동일록(關東日錄)』에 있는 100여 편의 시들은 이 기간에 쓴 것이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충청도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였다. 이곳에서 1493년(성종 24)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유해는 불교식으로 다비(茶毗)를 하여 유골을 모아 그 절에 부도(浮圖)로 안치하였다. 그는 생시에 이미 자기의 초상화인 노·소(老少) 2상(二像)을 손수 그리고 스스로 찬(贊)까지 붙여 절에 남겨두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매월당집』에 「동봉자화진상(東峯自畫眞像)」이 인쇄되어 전한다.

그의 문집은 이자(李耜)가 10여 년 동안 수집하여 3권 분량을 모았고, 윤춘년·박상이 자료를 모았다. 1583년(선조 16) 선조의 명으로 이이가 전을 짓고 교서관에서 개주 갑인자로 23권을 간행하였다. 일본 봉좌문고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작자 미상인 김시습의 초상화가 무량사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단종이 복위된 1707년(숙종 33)에 사헌부 집의(執議)에 추증되었고, 1782년(정조 6)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784년(정조 8)에는 청간(淸簡)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임유후(任有後)[1601~1673]는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효백(孝伯), 호는 만휴(萬休)이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敎理) 수정(守正)의 아들이다. 1626년(인조 4) 정시(庭試)에 급제하고 1627년 정묘호란 때 가주서(假注書)로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아우 지후(之後)가 반란을 음모하다가 배반하고 이를 대신들에게 누설하자 기만을 당한 향인의 무고(誣告)로 유후의 숙부(叔父)인 판서 취정(就正)과 그 아들 형제가 모두 장사(杖死)되었다. 화를 모면한 유후는 아우 지후와 의절(義絶)하여 종신토록 상면하지 않았다. 울진(蔚珍)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효

종 때 다시 출사(出仕)하여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있으면서 수항루(受降樓)를 세우고 학사(學舍)를 지어 변경에 치적이 많았다. 예조 참판·승지·도승지·호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경주(慶州) 부윤을 지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났으며, 만년에는 『주역(周易)』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시호는 정희(貞僖)이다.

오도일(吳道一)[1645~1703]은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이다. 선공감역(繕工監役) 오희문(吳希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오윤겸(吳允謙)이고, 아버지는 오달천(吳達天)이다. 어머니는 조간(趙幹)의 딸이다.

1673년(현종 14)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680년(숙종 6) 지평·부수찬, 1683년 지제조(知製敎)를 거쳐 1687년 승지가 되었다. 자파(自派)를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1694년 개성부유수를 지냈고,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대사간·부제학·강원도관찰사를 지냈고, 부제학을 거쳐 1696년 도승지·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다음 해 예문관제학·사직·이조참판, 1698년 이조참판·공조참판을 지내고 양양부사로 좌천, 삭출(削黜)되었다.

1700년 대제학·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1702년 민언량(閔彦良)의 옥사에 연루되어 장성에 유배되었다. 특별히 문장에 뛰어나서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라 불리웠으며, 술을 좋아하여 숙종으로부터 과음하지 않도록 경계를 받기도 하였다. 사후에 복관되었다. 저서는 『서파집』이 있다.

(2) 구장정사(龜藏精舍)

북면 신화1리 ‘서당마을’에 있는 사당으로서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구장사(龜藏祠)’ 또는 ‘구장서당(龜藏書堂)’이라고도 불린다.

고종 대에 훼손되기 전까지 구장정사는 우와(愚窩) 전구원(田九畹)과 만은(晚隱) 전선(田銑)을 모셨다. 이후 사우는 폐허가 됐고 그 자리에 우와 전구원의 유허비와 유허각을 세웠으며, 유허각 앞에 강당인 구장정사가 현존하나 퇴락했다.

50여 년 전에 일부를 고쳐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구장정사는 북면 신화리 ‘서당마을’에 위치하며 송향산에서 뻗친 ‘왕박골’ 언덕의 끄트머리에 남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사의 정남 쪽에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이 풍광을 노래한 만금산(萬金山)이 솟아있다. 정사 왼편에 죽림삼봉(竹林三鳳)으로 일컬어진 전구주(田九疇), 전구원, 전구령(田九齡)의 3형제가 시를 읊던 군자정(君子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됐다. 강당의 우측면에 ‘구장정사’ 편액이 현존하며, 우와집(愚窩集)과 구장정사점안을 소장하고 있다.

전구원(田九畹)은 본관은 담양(潭陽)이고, 자는 정칙(正則), 호는 우와(愚窩)이다. 아버지는 취죽헌(翠竹軒) 전유추(田有秋)이고, 어머니는 울진장씨로 장여길(張汝吉)의 딸이다. 부인은 신안주씨로 주개신(朱介臣)의 딸이다. 형의 아들 전덕철(田德哲)을 후사로 삼았으나 일찍 죽었다.

아홉 살 때 중앙절 모임에서 지은 「중양(重陽)」이라는 시에서 “나그네는 청천월에 취하고, 단풍은 구월산에 붉었네(客醉青天月 楓丹九月山)”라고 하여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형 전구주(田九疇)와 동생 전구령(田九齡)과 더불어 만휴 임유후에게 배웠는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울진군의 사람들이 죽림(竹林)의 삼봉(三鳳)이라 칭찬하였다.

1636년(인조 14) 남한산성의 굴욕 소식을 전해 듣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도동해시(蹈東海詩)」를 지어 병자호란(丙子胡亂)에 대한 분개와 울분의 뜻을 표현하였다. 1640년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1595~1646]이 관찰사로 울진군에 왔을 때 전구원에게 육언절구로 된 시 한 편을 내리자 전구원이 이에 화답하여 “도원 골짜기는 구름이 가득한데 울리의 삼춘은 수석에 취했구나(桃源一洞雲關 栗里三春醉石)” 하니 이명한이 시법이 백설과 같다 하고 돌아가 소금 한 섬을 보냈다.

1642년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1650년 이후 정자를 지어 ‘구장(龜藏)’이라는 현판을 달고 ‘군자정(君子亭)’이라 이름 지었다. 3형제가 매일 그곳에 올라, 우암(憂菴) 윤시형(尹時衡), 만은(晩隱) 전선(田銑), 한재(寒齋) 주필대(朱必大) 등과 어울렸다.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이 울진군수로 부임하여 전구원을 훈장으로 삼고, 향사음례(鄉射飲禮)를 행하여 유풍(儒風)을 크게 진작시켰다.

오도일이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내직으로 옮기면서 전구원의 시와 문장을 모아 서울의 선비들에게 두루 보이니 혹자는 “심오한 시법이 광채를 발한다” 하였고, 혹자는 “큰 옥을 갈라 둔 것 같다” 하였으며, 혹자는 “장안의 종이값이 하루아침에 뛰어오를 것이라” 하였고, 혹자는 “백수문장(白首文章)이란 소문이 장안에 가득하니 우와(愚窩)의 ‘우(愚)’자는 오늘부터 ‘우(愚)’가 아니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서울의 학자들이 그의 풍모를 사모하여 관동의 사표(師表)라 일컬었다. 1691년 향년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문집으로 『우와집(愚窩集)』3권 2책이 있고, 예서 『태고헌향음주서(太古軒鄉飲酒書)』가 전한다. 1863년 만은 전선과 함께 구장사(龜藏祠)에 배향되었다. 1868년 서원이 철폐되면서 그 자리에 유허비각을 지어 봄가을로 제향하고 있다.

(3) 옥계서원(玉溪書院)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석당(石堂) 김상정(金相定), 만은(晩隱) 전선(田銑)을 모시는 서원이다. 현재는 유허각만 남아 있다. 유허각이 선 자리는 원래 민가 터였다. 옥계서원은 다섯 번 이진하고 세 번 개칭되는 곡절을 겪었다.

부구리에서 군도 20호선을 따라 죽변 방향으로 2km쯤에 있는 새마마을의 끝자락인 ‘이중터’ 언덕에 옥계서원이 있다. 이 서원은 2005년 옥계서원 계와 지역 유림에서 신축한 것이다.

전면에 ‘새마거랑’이 흐르고 유허각을 둘러싼 대숲 너머 서북쪽으로 만금산이 솟아있다. 비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비석은 장방형의

대석(臺石)에 비신, 옥개석을 올린 가첨석비(加檐石碑) 형태이다.

김상정(金相定)[1722~1788]은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치오(稚五), 호는 석당(石堂)이다. 김장생(金長生)의 6세손이며, 대사헌 김만채(金萬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진항(金鎭恒)이고, 아버지는 군수 김영택(金令澤)이며, 어머니는 신성하(申聖夏)의 딸이다.

1762년(영조 38)에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이 된 뒤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를 역임하였다. 1771년 의성현령으로 재직 중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승지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다. 1777년 정조가 즉위하자 정조와 사이가 나빴던 홍인한(洪麟漢)과 가까웠던 이유로 파직되었다. 저서로 『석당유고(石堂遺稿)』 6권 3책을 남겼다.

전선(田銑)은 호는 만은(晩隱)이다. 아버지는 묵암(默菴) 전필위(田弼違)이다. 연산군 때 이이첨(李爾瞻)을 능지처참시킬 것을 주장하는 소를 대표로 올렸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벽지에서 물욕 없이 학문을 즐기며 한가로이 지냈다. 우암 송시열의 인정을 받았는데, 송시열이 유배 가는 길에 특별히 “늦은 봄 귀양 가는 나그네 역소에 발길을 멈추고, 꼬꼬리 무리들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네, 앞에 있는 푸른 바다 깊이 천척이라 한들, 전생(田生)이 날 보내는 정 비할 수 있을까”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1858년(철종 9)에 옥계(玉溪)의 선비들이 별묘(別廟)를 세워 우암 송시열을 모셨는데 그 옆에 전선을 봉향(奉享)하였다. 또한 우와(愚窩) 전구원을 모시는 구장사(龜藏祠)에 함께 배향되었으며, 화동(花洞)에 유허각을 세웠다.

(4) 몽양사(蒙養祠)

송암(松菴) 전이석(田爾錫)과 한재(寒齋) 주필대(朱必大)를 모시는 사우이다. 죽변면 후정리 후당 마을회관 옆에 있으며, 1716년(숙종 42)에 창건하였다. 고종 때 훼손된 후 강당을 강학소(講學所)와 재실로 활용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정면에 ‘몽양사’ 편액과 측면에 ‘재실’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 1937년 3월에 몽양사 터에 유허비와 유허각을 세웠다. 비각은 단칸 맞배지붕이며, 전면은 홍살, 측면과 후면은 흙벽으로 막음했다. 유허비는 3단의 화강암 비좌(碑座)에 세우고 팔작지붕형 비각을 갖추었다. 유허각 왼편 아래에 정자를 세워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전이석(田爾錫)은 자가 주경(周卿), 호가 송암(松菴)이다. 1599년(선조 32)에 태어나 1652년(효종 3)에 죽었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울진지방에서 ‘효(孝)의 사표(師表)’로 추앙받았으며, 죽은 뒤에 후손들과 유림에서 그가 거주했던 죽변면 후정리에 몽양사를 세워 배향했다. 몽양사에 함께 배향된 한재(寒齋) 주필대(朱必大)는 전이석의 효성에 감복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후정리 ‘후당’마을의 집과 재산을 물려줄 정도였다. 또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좌승지, 대사성에 오르고 청백리에 녹선(錄選)된 세마(洗馬) 이광정(李光庭)이 그의 효성과

죽음을 애도하여 묘갈명(墓碣銘)과 향사(享祀) 축문을 직접 지어 줄 정도였다.

이광정은 「묘갈명」에서 “전이석은 어머니가 일찍 병이 들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부친이 등창으로 오래 고생하자 입으로 종기를 빨아내어 낫게 하였다.”라고 전한다. 또 이광정은 “집안이 빈한하여 끼니를 마련치 못하자 바닷가에서 방어가 스스로 튀어나왔으며, 부모가 ‘생선을 넣은 고사리국’을 먹고 싶다고 하자 갈매기가 고기를 집어 떨어뜨려 주고 갔다.”라고 기록했다.

또 묘갈명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막을 짓고 상식(上食)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의 끼니를 대접하기를 삼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라고 전한다. 또 전이석이 병든 부친을 두고 먼저 죽으면서 “노부(老父)를 잘 모실 것”을 아내에게 유언했다 한다. 그때 공의 나이 54세였다.

전이석이 죽자, 향리 사람들이 관아에 아뢰어 당시 안렴사 오명준(吳命峻)이 전이석의 「행장(行狀)」을 찾아 작설지전(緙楔之典)[충신, 열녀, 효자의 집안을 표창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주는 특전]을 도모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몽양사에 배향했다.

효자(孝子) 송암공(松菴公) 유적(遺積) 행략(行略)

내 일찍이 들은바 송암공 유고집이 몇 권인데 회록 가운데 들어 있으나 글을 알지 못하므로 후대를 기다려 왔었다고 한다. 내가 상자에서 일련의 책을 찾아보니 종이 먹고 종이가 마모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송암공의 사실이 완연히 이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감읍하여 다시 고쳐 앉아 자세히 읽어보았다. 공은 하늘이 낸 효자였다. 여러 군자의 예에는 어찌 임금의 효자 포상의 은총을 얻지 못했으리오. 오호라! 아쉽도다. 효는 백행의 근원인데 부친의 질병을 당하여 고기를 구하고자 섬에 들어가 구했으며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어 소생시키니 옛적의 얼음에서 잉어를 넓적다리를 베어 봉양한 그러한 정성으로써 효의 지극함이며 이를 다하였음에도 어찌 되어 이처럼 쓸쓸히 드러나지 않았을까? 후당동의 죽인들과 여러 선배 모든 사람이 논의하여 후당 북에 사당집을 세우고 한재 주공 필대와 병향(並享)하기로 하여 봄철에는 거문고창을, 여름에는 시창을, 가을에는 강의를, 겨울에는 예를 익혔다.

주필대(朱必大)[1616~1693]는 본관은 신안(新安), 자는 후지(厚之)이고, 호는 한재(寒齋)이다. 아버지는 증군자감정(贈軍資監正) 주성유(朱聖兪)이다.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62년(현종 3) 증광시 생원 3등 63위로 합격한 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당쟁(黨爭)이 심하여 어수선하였기 때문에, 벼슬길에 대한 뜻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학문 연구와 자기 수양에 힘쓰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시문집 『한재선생문집(寒齋先生文集)』2권 1책이 있는데, 1919년 후손 주재영(朱在英)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문집 가운데 제문(祭文)에 수록된 「격암남선생사우고유(格菴南先生

祠宇告由)』는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의 해박한 지식을 찬미하며 사우(祠宇)에 봉안된 의미를 기술한 글이며, 잡저(雜著)에 수록된 「교접신창후(交接新創後)」는 능력에 따라 반을 나눠서 가르칠 것 등 서원 운영지침을 기술한 글이다.

(5) 노동서원(魯東書院)

울진군 기성면 황보1리에 있다. 평해 월송정 입구에서 구산방향으로 가다가 군무교를 지나 곧바로 왼쪽으로 5km쯤 가면 황보1리 입구에 황보감리교회를 만난다. 노동서원은 여기에서 1시 방향에 있다. 노동서원은 1816년(순조 16)에 지방 유림이 뜻을 모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노동서원은 울창한 송림에 둘러싸여 산을 등지고 넓은 들을 바라보며 남향으로 지어져 있다. 서원 입구에 들어서면 수령 200년은 족히 넘을 모과나무 1그루가 있다. 창건 당시에는 강당, 사당, 동·서재, 전사청, 주사, 내삼문, 외삼문 등이 다 갖춰져 있었다고 하나, 새로 중건을 하면서 강당과 사당만 남아 있다. 지금은 오랜 세월동안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매우 퇴락하였다.

1816년(순조 16) 우암 송시열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후 1921년에 중건되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평해구씨의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서원의 흥학당(興學堂)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평면은 어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인데, 대청은 앞면 칸과 뒷면 칸 사이에 사분합문(四分閤門)을 설치하여 뒤쪽 칸을 마루방으로 만들었다. 앞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한 후, 퇴칸의 앞면으로 평난간을 세웠다. 가구는 5량가의 소로수장형이며 처마는 흘처마이다.

노동서원의 노동사(魯東祠)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기와집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처리하여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어칸에는 쌍여닫이 세살문을, 양 측면에는 외여닫이 세살문을 각각 설치하였다. 앞면의 기둥에만 원형기둥을 설치하였고, 기둥의 윗부분은 이익공(二翼工)으로 장식하였으며, 처마 앞면에는 겹처마를 설치하였으나 배면에는 흘처마를 설치하였다.

노동서원의 주위에는 토석 담장을 둘렀으며, 앞면의 오른쪽으로 3칸 규모의 삼문을 세워 서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다. 3칸 규모의 대문채를 들어서면 강당인 흥학당(興學堂)과 상당인 노동사(魯東祠)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으며, 강당 오른쪽 배면에 설치된 판장문을 통해 사당을 출입하게 되어 있다.

(6) 명계서원(明溪書院)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 있다. 기성 버스터미널의 남쪽에 있는 기성 다리를 건너 바로 우

측 다천리 방향으로 500m가량 올라가면 정명천 건너편에 명계서원이 보인다. 1671년(현종 12)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과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가, 1881년(고종 18)에 서원 유지(遺址)에 강학소를 세우고 향촌의 교육을 담당했다. 1982년에 지방 유림에서 서원과 대해·해월선생을 모시는 사당인 덕유사(德裕祠)를 복설하였다.

서원은 강당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에는 대해와 해월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강당인 상교당(尙敎堂)은 유림 회합 및 학문 강론장소로 사용한다. 산을 등지고 경사면을 이용해 건축하였다. 남향으로 정명천을 끼고 넓은 들을 마주하고 있다.

황응청(黃應淸)[1524~1605]은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청지(淸之), 호는 대해(大海)이다. 1552년(명종 7)에 사마시에 합격,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후에 추천을 받아 연은전(延恩殿) 참봉이 되고 장원서 별좌(掌苑署別坐)로 옮겨 소를 올려 네 가지 폐단(弊端)을 진술하였는데 언사가 매우 적절하여 왕이 받아들였다. 진보(眞寶) 현감에 보직되어 기강을 바로잡고 밀려 있던 사건을 처리하고 읍정을 쇄신한 후 사퇴하였다. 독서로 낙을 삼고 원근의 학도들을 모아 가르치는 한편 다른 대유(大儒)들과 서면 문답하여 예문(禮文)의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이를 가정에서 행하게 되니 벽촌이 변하여 예의의 마을이 되었다.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일찍 평해 적소에 있을 때 그의 덕행을 사모하여 서로 왕래하며, 질의문답을 하여 그의 학문에 탄복하였으며, 81세에 사망,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황여일(黃汝一)[1556~1622]은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매월헌(梅月軒)이다. 1576년(선조 9)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85년 문과(文科)에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우고 2등 공신이 되었으며, 1594년 형조 정랑(刑曹正郎)을 거쳐 159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명나라에 건너가 문명을 떨쳤고 1611년(광해군 3)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었다. 1617년 동래진 병마 첨절제사(東萊鎭兵馬僉節制使)를 지낸 후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그림 51> 명계서원 강당



<그림 52> 명계서원 사당

(7) 운암서원(雲巖書院)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서원이다. 평해 월송정에서 기성 구산리 방향으로 1km쯤에 있는 군무교의 뒤 언덕을 돌면 운암서원을 만난다. 오른쪽에 황보천을 끼고 있으며, 전면에는 울창한 해송림과 함께 그 너머로 푸른 동해가 펼쳐져 있다.

운암서원은 본래 1827년(순조 27) 지방 유림이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백암(白巖) 김제(金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온정면 덕인2리 반암동에 창건했다. 그 후 1835년에 온정면 금천3리 노니실 마을로 옮겨 세우고 노은서원(老隱書院)이라 칭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에 훼철되었다. 1878년에 기성면 구산리 남쪽 산록에 상절묘인 수일당(隨日堂)을 건립하고, 1930년에 지금의 자리로 수일당을 옮겨 세운 뒤, 본사당인 충절사를 건립하고 손순효와 김제, 그리고 백계(栢溪) 김희(金禧)를 함께 모셨다.

운암서원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중앙 2칸은 마루로 꾸미고 좌우에는 통간의 방을 두었다. 강당에는 수일당(隨日堂)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백암 김제 선생 치제단(致祭壇)이라고 음각한 유허비를 모신 해단(海壇)이 있다.

손순효(孫舜孝)[1427~1497]는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경보(敬甫), 호는 물재(勿齋)·칠휴거사(七休居士)이다. 손영(孫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손유례(孫有禮)이고, 아버지는 군수 손밀(孫密)이다. 어머니는 정선군사(旌善郡事) 조온보(趙溫寶)의 딸이다.

1451년(문종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53년(단종 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또, 1457년(세조 3)에는 감찰로 문과 중시에 정과로 각각 급제하였다. 이어 경창부승에 발탁되고, 병조좌랑·형조정랑·집의·전한 등을 역임하였다. 1471년(성종 2) 17조의 시무책을 올려 채택되어 형조참의에 특진되었으나 직무상 과오가 있다 하여 상호군으로 전임되었다. 그 뒤 장례원판결사가 되어 소송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다. 1475년 부제학을 거쳐 동부승지·우부승지·좌승지를 지내고, 1478년 도승지가 되었다. 이어 강원도관찰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고, 호조참판·형조참판을 지내면서 왕비 윤씨의 폐위를 반대하였다.

1480년 지중추부사로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공조판서·경기도관찰사·대사헌·한성부판윤·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485년 임사홍(任士洪)을 두둔하다가 왕의 비위에 거슬려 경상도관찰사로 나아가 연해안 방어책을 강구하였다. 이어 우찬성을 거쳐 판중추부사를 지냈으며, 고령으로 사퇴를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중용(中庸)』·『대학(大學)』·『역경(易經)』 등에 정통하였다. 문장이 뛰어나고 대나무 그림에 능하였다. 『세조실록(世祖實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찬서(撰書)로는 『식료찬요(食療撰要)』가 있다.

김제(金濟)는 고려 후기 평해군수를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선산(善山), 호는 백암(白巖)이다. 아버지는 예의판서(禮儀判書) 김원로(金元老)이다. 평해군수로 재직할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이름을 제해(齊海)로 바꾸었는데, 동해로 뛰어든 제나라 노중련(魯仲連)의 절개를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시 한 수를 써서 벽에 걸어둔 채 행방을 감추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의 저 배야 노중련의 나루터가 어디냐. 오백 년 고려조의 한 사람 신하로다. 외로운 나의 영혼 죽지 않고 있다면 붉은 해 따라 단심을 비추고 싶구려.”

1803년(순조 3) 후손 김양선(金養善)이 김제와 그의 동생 김주(金澍)의 시와 편지글, 왕이 내린 교서 등을 모아 『쌍절록(雙節錄)』 2권 1책을 펴내었다. 정조(正祖)는 김제와 김주를 고죽국의 백이·숙제의 충절에 비유하면서 바다에 단을 세워 초혼제를 치르게 하였으며, 안동의 고죽서원(孤竹書院)에 배향하였다. 이어 정조는 영남 지역 유생들의 건의에 따라 시호를 내리는 교서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 제문을 직접 짓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운암서원(雲巖書院)에서 손순효(孫舜孝)와 함께 제향하고 있다. 시호는 충개(忠介)이다.

김희(金禧)는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백계(栢溪)이다. 고려 말 충신 백암 김제(金濟)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김예복(金禮復)이고, 어머니는 단양 우씨이다. 부인은 안강 노씨이다. 1563년 의성에서 태어났다. 품성이 맑고 곧았으며, 지조도 굽힘이 없었다. 일상생활에 있어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였으므로 남들이 홍보지 못하였다. 문장도 박학다식하였고 간간이 병서도 익혀 원근에서 모두 우러러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인근 마을에 격문을 돌려 모병(募兵)에 나섰고, 의병장이 되어 이웃한 경상북도 상주 단밀 지역에서 왜적과 싸우다 공을 세우고 장렬히 순국하였다.

고을 선비들이 합심하여 상충사(尙忠祠)를 세우고 추모하였는데, 의성군 비안면 용천 2리의 병호 충렬사(屏湖 忠烈祠)에도 열향되었다.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호조 정랑에 증직되었다. 1983년 임진왜란 충신인 공의 장한 충절을 만세에 기념하기 위해 유허비를 세웠다. 순

천인 박노선이 비문을 지었다. 2002년 3월 1일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에 ‘임란 의병장 백계 김희공 충의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은 청송 심재완(沈載完)이 지었다.

(8) 성동정사

강릉 최씨 각골파[사간공파의 분파] 파시조 종택에 있는 서재(書齋)로 강학활동의 장소이다. 현재는 해체되었다. 매화면 매화리 윤촌마을에 있으며, 종택의 정침 우측에 자리 잡았다. 정사 뒤편에 가묘(家廟)가 있다. 정사는 남수산 지맥인 ‘성심산’ 끝자락에 있다.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정사의 주인인 관가당(觀稼堂) 최배용(崔配溶)이 「관가당기(觀稼堂記)」를 쓴 해가 1837년(헌종 3)인 것으로 미루어 이 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명(堂名)은 종택의 뒷산인 ‘성심산’의 ‘성(聖)’자를 따서 명명했다고 전한다. 현 종손인 최부열(崔富烈)의 7대조인 관가당, 6대조인 매호당(梅湖堂), 5대조 애월당(愛月堂), 증조부인 외당(畏堂) 선생의 편액이 전하며 선조의 문집을 모아 편 『성동세고(聖東世稿)』가 있다.

3. 출판과 지식문화

1) 울진의 지식인

조선시대 울진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문적 전통을 만들어 갔던 인물과 그들의 학적 정체성을 통해 울진의 지식문화의 성격을 갈음할 수 있다.

(1) 장말익(張末翼)

장말익은 호는 매계(梅溪)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니, 도덕박문(道德博文)함이 문(文)이요, 안민입정(安民立政)함은 성(成)이라라. 선생은 고려태사(高麗太師) 충헌공(忠獻公) 포음(圃蔭) 선생의 현손이며, 평장사(平章事) 송계(松溪)선생 휘 지현(之賢)의 다섯째 아들로써 고려 정종(靖宗) 때 탄생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호부상서문하시중 평장사상주국(戶部尙書門下侍中 平章事上柱國)에 이르렀고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에 봉해졌고, 채읍(采邑)성주(城主)로 재직하고 있을 때 청렴결백하게 선치(善治)하여 백성을 사랑하니 믿음과 은혜가 향 중에 가득하여 고루고루 돌아가 온 고을 백성이 교화되어 감복하였다. 자손들이 이로 인해 관향(貫鄉)으로 삼아 관시조(貫始祖)로 모셨다. 삭방도(朔方道) 안렴사(按廉使)로 있을 때 본 군 읍성인 산내성(山內城)[화성리 성내동]을 순시하니 성내 지형이 협소하여 성(城)을 넓이고 성축(城築)을 높이 쌓았다.

1856년 철종(哲宗) 7년 사림(士林)들이 무월동(舞月洞)에 월계사(月溪祠)를 창건하고 장말익(張末翼) 선생을 봉향하다가 1862년 철종(哲宗) 13년 4월 7일 예조(禮曹)의 관문승원에(關文陞院例)에 의하여 월계서원(月溪書院)으로 승격되었으나, 1868년 고종(高宗) 5년에 조

정에서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되었다.

1924년 후손과 향내사림(鄉內士林)들이 고성2리 가원동(佳原洞)에 사당(祠堂)을 이건하고 세덕사(世德祠)라 칭하였다. 1927년 8월에 경덕사(景德祠)로 개칭하고 1945년 광복(光復)과 아울러 월계서원(月溪書院)으로 복칭(複稱)하여 매년 10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예(鄉禮)의식으로 향사(享祀)하고 있으며, 월계서원 남쪽 언덕 위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2) 장양수(張良守)

장양수는 고려태사(高麗太師) 충헌공(忠獻公) 포음(圃蔭) 선생의 12세손이며,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 매계(梅溪) 선생 말익(末翼)의 8세손이다. 1205년 고려 희종(熙宗) 원년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봉익대부(奉翊大夫) 전리판서(典理判書) 상호군(上護軍) 등의 벼슬에 이르렀고 일찌기 중국사신으로 갔다 온 업적과 나라에 많은 공덕을 남겼다.

관리등용시험(官吏登用試驗)을 응할 때 문권(文券)들은 전쟁불 속에서 소멸되었을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다행히 홍패보첩(紅牌寶牒)[급제패지]만은 유일하게 유전(遺傳)되어 문장(文章)과 덕업유풍(德業遺風)이 온 세상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주어 흡사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니 보(寶) 중에 보(寶)라 아니할 수 없다. 이 홍패 급제 패지(及第牌旨)는 779년만인 1975년 10월 13일자로 정부로부터 국보 제181호로 지정등록되어 본 군 월계서원내 국보각(國寶閣)에 소장되어 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패지(牌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행정문서로서 문중의 자랑이요, 울진의 보물이다.

묘소는 미상으로 후정2리 매정동(梅亭洞) 용호언덕(龍虎原) 위에 후손들이 설단(設壇)하여 제향하고 있다. 1856년 철종(哲宗) 7년에 향내사림(鄉內士林)들이 호월리(湖月里) 무월동(舞月洞)에 월계사(月溪祠)를 짓고 문성공(文成公) 장말익(張末翼) 선생과 함께 봉향(奉享)하였다. 1862년(철종 13) 4월에 예조에 의하여 월계사가 월계서원(月溪書院)으로 승격되었지만, 1868년 고종 5년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되었다. 1924년 사림들이 사당을 고성2리 가원동(佳原洞)에 이건하고 1945년 광복을 맞아 월계서원으로 복칭(複稱)하였다. 서원내 경덕사(景德祠)에 문성공(文成公)과 함께 매년 10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예(鄉禮)의 의식에 의한 향사(享祀)를 올리고 있다. 신도비는 월계서원 남쪽 언덕 위에 울진부원군 장말익선생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3) 전자수(田子壽)

전자수는 호는 회정(晦亭)이며 고려 때 찬성사(贊成事) 문원공(文元公) 경은(耕隱)의 손으로, 벼슬은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평리(僉議評理)겸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이었다. 고려의 국운이 날로 쇠퇴됨을 한탄하여 말하기를 “서리바람 차가우니 얼음 얼 날 멀지 않고, 일찌감치 그만두자 늦어지면 후회하리”라 하였고, 사간(司諫)직으로 강원도안렴사(江原

道按廉使)가 되어 순시 중 평해에 와서 산수가 뛰어나게 아름다움을 빙자하여 벼슬을 돌려주고 물러나 숨어서 양진재(養眞齋)를 짓고, 항상 청우(靑牛)를 타고 소나무와 흰모래 사이를 다니며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으니 “출세할 때 하고, 숨을 때 숨고, 말할 때 말하고, 말 안할 때 안하는” 옛 사람처럼 유학자의 처신과 같았다.

또한 공이 지은 제월송정은 “드러나고 감춰짐이 달과 같고, 몸가짐과 의리는 술과 같노라. 정자는 두 정학을 겸했으니 이것이 중용의 도리 일리라”하였다. 김구용(金九容)과 의리로 사귀어 술을 주고 받을 때 시가 있었고 편지에 오고 간 글이 김구용(金九容) 문집에 실려 있다. 평해군수 권공(權公)이 공에 대하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훌륭한 사람을 모두 찾아 벼슬을 주는 것인데 벼슬을 버리니 세상이야 알던 말던 뛰어나고 어젯한 청사(淸士)라” 하였다.

동강(東江) 김영한이 묘비문에 “천추의 빛이 되니 아! 회정(晦亭)이라 하다. 태암서원(泰巖書院)과 본 고을 경문사(景文祠)에 봉향하였다.

(4) 손순효(孫舜孝)

손순효는 평해인으로 평해군(平海君) 손익담(孫翼淡)의 후손으로 휘는 순효(舜孝) 자는 경보(敬甫), 호는 물재(勿齋) 또는 칠휴거사(七休居士)이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1427년(세종 9)에 출생하여 성종 때 임금의 공을 쌓은 상신(相臣)으로 어려서부터 총명과 지혜가 특이하여 6~7세에 능히 소학을 통하고 성장하면서 뜻을 성리학에 두어 언어 행동이 살아가는데 예의에 벗어남이 없이 학문을 닦는데, 동배들이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없었다.

1451년(문종 1)에 생원시에 장원하고, 단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전한집의(典翰執義)가 되어 17항목의 정책을 상소하여 채택되자 성종(成宗)이 이를 기쁘게 들이시고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었다. 그 후 상호군(上護軍)으로 좌천되어 사퇴하여 남산 밑에 초정(草亭)을 짓고 후생을 가르치다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도승지(都承旨) 강원도 관찰사(觀察使)로 승진되어 성종이 윤비를 폐위하려 하자, 그 부당함을 상소하여 극간하였다. 호조참판(戶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1480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좌참찬(左參贊)에 배명된 후 경기관찰사로 나갔다.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임명되어 왕명에 의하여 충서(忠愬)의 시를 지어 올리니 성종께서 공의 성의가 간절하니, 기쁘게 여긴다 하고 특별히 정헌(正憲)에 승진시켰다.

1485년 입사홍(任士洪) 사건에 허물을 논박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경상도 관찰사로 좌천되어 영천읍(永川邑)에 갔다가 포은사당(圃隱祠堂)이 허물어져 새로 짓게 하고 우찬성(右贊成)이 되고, 1487년 식료찬요(食療纂要)로 찬진(撰進)했다. 1496년(연산군 2) 연로한 이유로 사직의 뜻을 표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고 비답(批答)으로 궤장(几杖)이 내렸으나, 향년 71세로 사망하니, 때는 1497년(연산군 3) 3월 23일이다.

성리학(性理學)의 대가로 특히 대학·중용·역경에 정통한 대문호(大文豪)로 또한 한묵(翰墨)의 명가로서 경륜을 갖춘 대정치가이다. 문집이 있고 본 군 운암서원(雲巖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5) 남계명(南季明)

남계명은 호는 해운(海雲)으로 지조와 행실이 고결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그 낯 지나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금시[화살:金矢]라 하였다. 어릴때부터 어버이 병간호에 정성을 다 하였으며,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공양하여 병에 차효를 얻었다 한다. 나이 18세 때 아버님 상을 당하여는 여막을 짓고 묘를 지켰으며, 어머니 상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25세 때 진사시에 등과하여 소문이 고향에 자자하였으며, 관찰사(觀察使)가 초빙하여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김종직(金宗直)[1431~1492] 문하에 있으면서 지은 화원창주시(花園唱酬詩)가 있고 정여창(鄭汝昌)[1450~1504], 김일손(金駟孫)[1464~1498]과 교유하였다. 이천(伊川)교수가 돌아가자 요승(妖僧) 학조(學祖)가 향교의 땅을 약탈하므로 공이 사법당국에서 부당함을 질책하였으나 요승이 굴복하지 아니하여 섬들을 들어 던지려고 하니 두려워 도망하였다. 상소하고 입궐하여 속이는 죄를 상세하게 진술하니 중종(中宗) 임금의 비답(批答)하기를 ‘한유천재(韓愈千載) 후에 유일(唯一) 남계명(南季明)’이라 하였다. 유집이 있고 1928년에 상현사(尙賢祠)에 봉향하였다.

(6) 남사고(南師古)

남사고는 호(號)는 격암(格菴)이며 만호(萬戶) 호(顯)의 증손으로 천품이 재주 있고 사리에 밝아 경사(經史)에 능통하였다. 집이 거적으로 단 문으로 바람과 비를 막지 못하였어도 태도가 태연하였고 마음은 즐거워 하였으며, 항상 소학을 책상에 두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특히 역학·천문·지리에 정통하여 기(氣)의 묘를 관찰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해동강절(海東康節)이요 여남(汝南) 안자(顔子)라 하였다.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주역(周易)을 논하다가 그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주역에는 신인이라 하였다. 그런데 깊은 말을 조정에 올리기를 “조정이 머지않아 동서분당론(東西分黨論)이 일어나 국가의 근심이 막심하리라” 하였고, 서쪽 하늘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말하기를 “명 천자가 죽는다” 하였으며, 한참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묵례하니 화창한 날에 사직동(社稷洞)에 기가 서려있음을 보고 성인이 태어난다 하여 국가의 경사가 있음을 예측하더니 과연 후에 덕흥군(德興君)이 탄생하였다.

또 소백산에 올라가 동남쪽에 왕성한 기를 바라보고 진·사(辰·巳) 양년에 나라 임금이 피난 가는 큰 난리가 일어난다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식자들의 한이 되었다. 또한 천자

(千字)의 주를 달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었고, 완역도(玩易圖)를 제작하여 이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 황왕포(皇王鋪) 서문과 설월품제(雪月品題)가 있다. 선조(宣祖) 초에 천문교수로 재직할 때 오래되지 않아 태사성(太史星)이 어두워짐에 관상감정(觀象監正) 이번신(李藩臣)이 나이 늙었음을 의심하니 격암(格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할 자가 자기라 하더니 그 후 격암선생이 돌아갔다.

현령(縣令) 정구수(丁龜壽)가 고을 사람들과 같이 1574년(선조 7)에 옥계서원(玉溪書院)에 봉향하다가 임진왜란 때 서원이 불탔고 1621년(광해군 13)에 몽천사(蒙泉祠)에 이향(移享)하였다. 또 1693년(숙종 19)에 향현사(鄉賢祠)에 모시다가 1868년(고종 5)에 서원이 철폐되어 1927년에 화산사(花山祠)에 봉향하고 화산사를 상현사(尙賢祠) 개칭하여 배향하였다.

(7) 주경안(朱景顔)

주경안은 일상생활에서 행동함이 꾸밈이 없고 순수하며 성실하여 충효가 갖추어져 있어 1578년(선조 11)에 정문(旌門)을 받았으며, 1748년(영조 24)에 조정으로부터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벼슬과 충효당(忠孝堂)의 추호(追號)를 증직받고 삼강록(三綱錄)에 올랐다. 또한 불천사(不遷祠)와 충효당(忠孝堂)을 구만동(九萬洞)에 세우고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당기(堂記)를 지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살던 마을[九萬洞] 동쪽 산봉우리에 단을 만들어 놓고 나라가 무사하기를 7년 동안 하늘에 빌고 슬피 울면서 솔잎죽만 먹었으니 후에 고을 사람들이 그의 덕행과 충효를 사모하여 향현사(鄉賢祠)에 배향하고 1965년에 후손들이 축천대(祝天臺)에 유허비를 세웠다. 또한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이 공의 만가(晩歌)에 “은 읍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호자라 하고 정문에서는 행인들도 절을 하며, 명복을 빈다네”라고 지은 글이 전해지고 있다.

(8) 전선(田銑)

전선은 호는 만은(晩隱)이며 필위(弼違)의 손으로 벼슬은 가선(嘉善)이다. 나이 스무 살 무렵인 조선 연산 때 이이담(李爾膽)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능지처참시킬 것을 대표자로 소를 올렸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응시하였으며 벽지에서 물욕 없이 학문을 즐기며 한가로이 지냈다.

송우암(宋尤菴) 선생이 남쪽으로 유배 가는 길에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 받은 시가 있으니 “늦은 봄 귀양 가는 나그네 역소에 발길을 멈추고, 피꼬리 무리들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네, 앞에 있는 푸른 바다 깊이 천척이라 한들, 전생(田生)이 날 보내는 정비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지어 주었다. 1858년(철종 9)에 옥계(玉溪) 선비들이 별묘(別廟)를 세워 우암(尤菴) 선생을 모시는 옆에 공을 봉향(奉享)하고 우와(愚窩) 전구원(田九畹)을 모시는 구장사(龜藏祠)에 병향하였다. 그리고 화동(花洞)에 유허각을 세웠고 유집(遺集)이 있다.

(9) 황응청(黃應淸)

황응청은 호는 대해(大海)며 조선 명종(明宗) 때 학자로 1552년(명종 7)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진보현감(眞寶縣監) 벼슬을 지냈다. 공은 독서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도를 닦으며 즐겼고, 학문을 깊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세상에서 사범(師範)이 되었다. 또한 공이 장원서별좌(掌苑署別座)로 있을 때 조정(朝廷)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 높은 벼슬을 주려고 찾아갔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선조(宣祖) 때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점점 퇴폐되어감으로 대궐에 가서 4가지 시폐(時弊)를 상소하니 임금이 달갑게 받아들이고 진보현감을 명하니 얼마 후에 벼슬을 버리고 귀가하여 대해당(大海堂)을 명계(明溪)에 세우고 조목(趙穆), 박성(朴愷), 이산해(李山海) 등과 교류하며 후진을 가르치니 문하에 이름난 선비가 많이 배출되어 향풍이 크게 변하여 세칭 대해선생(大海先生)이라 불렸다. 1671년(현종 12)에 명계서원(明溪書院)에 봉향하여 정중히 모셨고 저서로는 기성지(箕城誌) 향당헌(鄉黨憲)이 있으며 문헌에 학사집(鶴沙集)이 있다.

(10) 황여일(黃汝一)

황여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해월(海月)이며 본관은 평해다. 공은 용모가 빼어나고 재질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도량이 넓었고, 어려서부터 가훈을 이어받아 세속에 초연하였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도학과 의리를 숭상하고 학문을 즐겨하니 문장이 넓어 아는 것이 많았다. 또 조정에서 임금을 섬기는데 명분과 절개로 충실하게 복무하였다. 공이 13세 때 경전과 사기를 해독하여 향시에 장원급제하였고, 1584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거쳐 호당(湖當)에서 경전을 강의하고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이조(吏曹)와 병조정랑(兵曹正郎)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으며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

공은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등으로부터 성리학(性理學)의 학통을 이어받은 분으로 1583년에 조정에서 문묘배향(文廟配享)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오현(五賢)의 배향을 적극 주장하였고, 1598년에는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명나라 무변진주사(誣辯陳奏使)로 가서 문명(文明)을 떨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宣祖)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 1537~1599]과 함께 행주대첩(幸州大捷)과 진주성싸움에서 공을 세워 1607년 7월 선무원종이등훈(宣武原從二等勳)을 받았다.



<그림 53> 황여일 신도비

공(公)이 집안에서 후진에게 학문을 장려할 때에는 덕행을 앞세우니 많은 선비가 나왔으며 또한 평해 향중의 눈을 뜨게하여 세칭 해월선생이라 하였다. 그리고 1622년에 영민하니 명계서원(明溪書院)에 봉안하고 제향하였다. 저서로는 조천록(朝天錄), 주자절요주석(朱子節要註釋), 유집(遺集) 7권이 있으며 유물로는 만국곤여지도(萬國坤輿地圖)가 있다.

(11) 전구원(田九畹)

전구원은 본관은 담양(潭陽), 자(字)는 정칙(正則)이며, 호는 우와(愚窩)이다. 봉예공(奉禮公) 진(晉)의 8대손이다. 1615년(광해 7) 취죽헌(翠竹軒) 유추(有秋)의 중자(仲子)로 태어나시니 기품이 청수하시고 총명이 과인하여서 아홉 살 때 중앙절(重陽節) 모임에 가서 “나 그네는 청천월에 취하고, 단풍은 구월산에 붉었네”(客醉青天月 楓丹九月山)하니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 전한다.

백씨(伯氏)인 구주(九疇)와 계씨(季氏)인 구령(九齡)과 더불어 만휴(萬休) 임선생(任先生) 문하(門下)에서 수업하여 학문과 덕행이 당시를 압도하니 향중사람들이 죽림(竹林)의 삼봉(三鳳)이라 칭하였다. 1626년(인조 4)에 남한산성의 굴욕소식을 전해 듣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도동해시(蹈東海詩)를 지어 오랑캐는 백 년을 지탱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고 1640년(인조 18) 봄에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이 관찰사(觀察使)로 울진에 오셨다가 선생을 찾아가 육언시(六言詩) 한 수를 지으니 선생께서 답하기를 “도원 골짜기는 구름이 가득한 데 울리(栗里)의 삼춘(三春)은 수석(水石)에 취했구나”(桃源一洞雲關 栗里三春醉石)하니 이 공(李公)이 탄상하기를 그대의 시법이 백설과 같다하고 돌아가 해설일석(海雪一石)[소금 한 포]을 보내 주었다.

1642년(인조 20)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풍악놀이 같은 의식을 겸손하여 행하지 못하였으며 벼슬도 마다 하셨다.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이 군수로 와서 선생을 강장(講長)으로 모셔놓고 고을 선비들을 모아 경서와 예법을 가르치니 고을의 문풍이 율연하였다. 오공(吳公)이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내직으로 가게 되었는데 선생이 시(詩)와 문(文)을 모두 모아 가지고 가서 서울의 석학들에게 두루 보이니 혹은 “심오한 시법이 광채를 발한다” 하였고, 혹자는 “큰 옥을 갈라 둔 것 같다” 하였고 혹자는 “장안의 종이 값이 하루아침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하였고 혹자는 “백수문장(白首文章)이란 소문이 장안에 가득하니 우와(愚窩)의 우자는 오늘부터 우(愚)가 아니네” 하였으니 이로부터 서울의 학자들이 선생의 풍지(風旨)를 사모하여 관동의 사표(師表)라 칭하였다.

1691년(숙종17)에 77세로 일기로 하여 본재(本齋)에서 고종(考終)하시니 고을 학자들이 우리 고을이 문풍으로 소문이 있게 된 것은 모두 선생의 덕택이라 하여 유림의 뜻을 모아 구장사(龜藏祠)에 봉안하여 추모하여 오다가 1868년 고종(高宗) 5년에 서원이 철폐되고 그 자리에 유허각을 지어 춘추로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구장정사(龜藏精舍)는 보존되어 있으며,

우와집(愚窩集) 상하권이 전하고 있다.

(12) 윤시형(尹時衡)

윤시형은 본관(本貫)은 파평(坡平), 자(字)는 평중(平仲), 호는 우암(憂菴)이다. 파평윤씨(坡平尹氏) 14세손 야성군(野城君) 윤혁(尹赫)[고려 충숙왕의 사위]의 후손으로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 몽열(夢說)의 아들이니 1602년 출생하였다.

자랄 때부터 글짓기에 재질이 남보다 뛰어나서 16세 때 지은 봉왕부(蜂王賦)는 당시 고을 선비들을 놀라게 하였고 백일장(白日場)에 여러 번 장원하여 동료 선비들간에 명망이 높았다. 만휴(萬休) 임유휴(任有休), 주형(朱炯) 등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하고 생사를 같이하는 막역한 벗이었으며, 선생은 영양(英陽)에 사는 동지 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임(趙任)의 사위로 한 때 잠시 영양에 머물면서 이름이 높았던 선비 이시명(李時明), 김시온(金是榘) 등과도 글로 사귀어 벗으로 영동 영서간에 크게 알려졌다.

1647년(인조25)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어 성균관에 수학할 때 강심경부(江心鏡賦)를 지어 장원하여 대제학(大提學)의 별칭으로 천망(薦望) 되었다. 선생은 성품이 온후하고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학자로 그 아래서 글을 배운 인재가 많이 배출 되었으며,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사경위기에 있는 모친의 병에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리고 정성으로 간호하여 구하였고 또한 형제간에 우애와 죽친간 화목으로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

1656년(효종 7) 삼남지방(三南地方)에서 8년간 한발로 흥년이 계속되자 효종께서 민간 선비들에게 정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교가 내리자 선생은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정책대안인 여러 수천 말을 작성(萬言疏)하여 올리니, 효종께서 감탄하시고 답서(批旨)를 내리는 동시에 그 상소문을 출판하여 팔도에 배포하여 표본이 되게하니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선생은 1663년(현종 4) 향년 62세로 돌아가시니 유럽에서 힘을 모아 1693년(숙종 19)에 본군 원남면 금매리 몽천(蒙泉)에 몽천사(蒙泉祠)를 건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향사하다. 그 후 몽천서원(蒙泉書院)으로 승격되어 1693년(철종 9) 관수(官需)로 제향하다가, 고종 5년 서원이 철폐되어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에 삼대 우암 시형(時衡), 삼족당 여룡(如龍), 황림 사진(思進)을 모시고 배향하고 있었으며, 문집 4권과 유품이 소장되고 있다.

(13) 윤사진(尹思進)

윤사진은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황림(篁林)이며 우암(憂菴) 시형(時衡) 선생의 증손이고 삼족당(三足堂) 여룡(如龍)의 손이다. 정조(正祖) 때 정관치설(井觀痴說) 즉 천인일리학설(天人一理學說)과 통서연의(通書衍義) 잡저(雜著) 등을 저술하였는데 이 무렵 나라에서 전국에 묻혀 있는 학덕 있는 선비를 천거하라는 정조대왕의 어명에 따라 올진현령 이병정(李秉鼎)이 공의 행정과 저서 등을 강원감사(江原監司) 윤사국(尹師國)에게 올렸고 감사(監司)

는 이 행장과 저서 등을 정리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올렸다.

정조(正祖) 임금의 이 행장과 저서 등을 보고 “벽지고을에 이같이 학행이 높고 독실한 선비가 있으니 진실로 기쁘다”하였으며, 이는 한 고을의 어진 선비요 작은 고을의 충신이라고 칭찬하고 두 차례나 강원감사를 통해 유지(有旨) 즉 비지(答批旨)를 내리면서 공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특수(特授) 영동교양관(嶺東敎養官)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예각(藝閣)에 간행하도록 명령하고 편리한대로 책본을 내각(內閣)에 판각하게 하였으며 판각된 수를 계산하여 수장 보관하게 하였다.

1793년(정조 17)에 몽천서원(蒙泉書院)에 봉향하였으며 원집(原集) 및 정관치설(井觀痴說) 5권을 간행하여 당시 완각된 목판과 원집(原集) 등 유물을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공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유생과 후예들이 1988년에 몽천동(蒙泉洞)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우측에 신도비를 세웠다.

2) 울진의 출판문화

조선시대 서적은 유교이념과 관련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번각하거나 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1403년(태종 3)에 주자인쇄(鑄字印刷)가 다시 시작된 이후라 하더라도 활자인쇄는 인출 부수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서적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중앙관서에서의 목판인쇄는 태종이 국초에 두었던 교서관(敎書監)과 서적원(書籍院)을 합쳐 만든 교서관(校書館)과 그 명칭을 고친 전교서(典校署)가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도 주자소(鑄字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는 본원인 내각(內閣)이 각각 맡아왔다. 지방관서의 목판인쇄는 세종 이후 점차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중앙관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수시로 판각하고 그 책판을 오래 잘 간직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찍어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필요한 서적을 국가가 주관하여 간행하고, 보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스스로 어떤 책을 얼마나 간행할지, 어느 곳에서 출판할지를 결정하여 해당 관청에 그 일을 부과했다. 그 관청은 중앙관청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의 감영이 될 수도 있었다.

조선시대 지방에서는 감영을 중심으로 조정으로부터 서적을 내려 받아, 이를 저본(底本)으로 번각(翻刻)하여 감영 관할의 부(府)·목(牧)·군(郡)·현(縣)에 보급시켰으며, 조정의 명령으로 감영의 판본을 간행하여 상송(上送)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에서는 주로 유학의 보급과 교육을 위하여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한편, 관찰사 및 지방관이 자신의 관직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조상이나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국초에는 국가의 법적 틀을 새로 세우기 위해 먼저 형사와 관련된 중국 법률서를 활용하

였고 왕조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법전을 계속 정비하여 완성해갔다. 조선은 건국 직후인 1395년(태조 4)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간행하였고, 1485년(성종 16)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이는 객관적 규범과 통일된 법전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법전을 중심으로 법률서가 출판되고 중기에는 법령집과 사찬법서가 등장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국왕이 특정한 개별사안에 대해 내리는 법령이 운음(綸音)이나 사목(事目)·절목(節目) 등의 형태로 반포되었다.

서적의 간행 부수는 그 시대 서적의 보급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수로서 공급과 수요상황을 나타내준다. 조선 전 시기 중에서 관찬서의 간행 부수가 가장 많을 때는 조선 초이다. 조선초기 서적은 간행 부수가 100~800부 정도 되는 서적이 20여 종이 된다. 그중 부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세종대의 속육전·원육전으로 간행부수가 800부이다.

중종 대에는 적극적인 서적 진흥책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중종대에는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소학(小學)』·『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등이 명종대에는 『구황촬요(救荒撮要)』, 선조대에는 『사서율곡언해(四書栗谷諺解)』 등 언해서가 간행되었다.

출판활동의 새로운 성과는 사람들이 개혁정치를 시행하던 1515년(중종 10)~1519년(중종 14), 그리고 을사사화를 겪은 후 사람들이 재집권하던 중종 3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련의 개혁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적을 활용하였다.

명종 대에는 지방에서 유학·문집류를 많이 간행하였다. 명종 대에는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 논쟁을 통한 학문적 심화가 진행되고, 본격적인 사람활동이 전개되어 주자성리학은 다양한 사상체계를 갖추고, 유교경전에 대한 주석·언해작업 등 주자학 관련 저작물들을 편찬하였다. 그 저작활동은 점차 개인에 의한 민간주도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주제별로 많은 문집들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간행 활동도 활발해졌다. 지방에서 또는 지방관료들이 자체적으로 그곳 관청을 통해 간행사업을 진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가 그 주축을 이루면서 중앙관판은 지방관판 서원판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후기의 사가본(私家本)·방각본(坊刻本)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조대에는 민심 수습을 위한 사회 교훈서적을 많이 편간(編刊)되었다. 인조는 예조에 『소학』·『오륜가(五倫歌)』·『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의 서적을 반포하게 하였으며, 황해감사 이경용(李景容)은 『격몽요결』을 인쇄해서 올렸고, 교서관에서는 소학 2백 권을 인쇄하여 내외의 신료들에게 나누어주라 명하는 등 인재를 기르고 풍속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국방·경제 부문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농서(農書)·병서(兵書)·구황서(救荒書) 등이 간행되었다. 농서 편찬은 조선후기에 매우 활발하여 17세기 중엽 효종으로부터 19세기 중엽 헌종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두드러졌다. 조선초의 농서발간의 주요목적은 재정기반을 확립하고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후기에는 양란으로 파괴된

농업을 회복하여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서도 출판활동이 활기를 띠어 중앙관청 중심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과의 문화적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흐름은 지방관판·서원판으로 연결되면서 17세기에 사가본(私家版)·방각본(坊刻本)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방각본은 조선시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해 출판한 서적이다. 인쇄술이 발전하였으나 일반 대중과 서민의 책수요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주로 일반상식을 담은 백과사전 등 실용서적과 학습서, 유교경전, 소설 등과 같이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했던 서적이 대상이 되었다.

18세기의 서적 간행은 조선후기 중 가장 전문화되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즉, 정치류·역사지리류·제도류·사회류·경제류·과학기술류·어학·문학류·유학류 등의 서적이 고르게 편간되었다. 또한 무입(賃入)보다 편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발달을 보게 되었다. 정치류는 문물제도 전반을 집대성하였고 법전의 편찬으로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재정을 위한 시행세칙과 사회의 기풍 및 천재에 따른 구휼을 위해 각종 윤음을 반포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삼강행실도』를 계속 간행하였는데 1729년(영조 5)에는 여러 도의 감영으로 보내 복각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서적 간행활동은 문화수준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서적의 간행이 많다. 또한 문화수준은 지역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행정체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곳이 서적의 간행에서도 중심을 이룬다. 조선시대 강원도 행정구역 및 명칭도 현재의 행정구역과 상이하다. 현재 울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시대 강원도에 편제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8도 체제로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되면서 1413년(태종 13)에 강원도라 하는 도의 명칭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1399년(정종 1)에는 원주의 속현인 영춘과 충주의 소관인 영월을 서로 바꾸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가평과 조종을 경기도에 이속하였으며, 경기도 소속이었던 이천(伊川)을 강원도에 이속하였다. 1434년(세종 16)에는 경기도에 속하였던 철원과 안협이 강원도에 이속되었다. 관찰사 소재지인 강원도 감영은 원주에 두어졌고, 관찰사 밑에 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을 설치하여, 1목·1대도호부·5도호부·7군·12현이 되었다. 이 중 부·목·군·현은 행정계통이고, 대도호부와 도호부는 군사계통이다.

1914년에는 소규모 군들의 통폐합 과정에 평해는 울진에, 금성은 김화에, 안협은 이천에, 고성은 간성에 병합되었고, 1919년에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면서 북위 38도선으로 북강원도와 남강원도로 양분되었고, 1953년에 한국전쟁이 종료되어 고성군에서 철원군으로 이어지는 휴전선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1963년에는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고, 김화군은 철원군에 병합되어 현재와 같은 강원도, 이른바 남강원도의 행정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적을 간행하는 작업은 서적 간행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종지와 판각기술 바탕이 되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종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5세기 전반기에 닥나무와 뽕나무를 심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장려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닥나무의 경우 강릉·양양·평창·영월·횡성·홍천·삼척·평해·춘천·고성·통천 등지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각 관청에 등록된 지장(紙匠)은 모두 33명이었다. 이것은 조선전기에 부·목·군·현이 위치해 있던 지역에서도 고르게 서적간행에 필요한 종이를 보급할 수 있었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세기 중기 각 지방 감영의 목판인쇄 판각의 수준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앞서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433년(세종 15) 전라도와 강원도에 향약집성방을, 1456년(세조 2)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 『신찬병요』를 1468년(세조 14)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에 『약서』를 분송하여 간행하라고 한 경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강원도의 서적의 간행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고사촬요』 책판목록을 살펴보면 1576년(선조 9) 을해자본과 비교하여 1590년(선조 18) 목판본은 종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황해도의 경우 52종, 전라도의 경우 171종, 경상도의 경우 165종, 평안도의 경우 34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판본의 수량이 동일하다. 이후 다른 책판목록에서도 책판의 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조선초기에는 각 도가 균등한 문화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서적간행 활동의 근간이 되는 사회·문화·기술적 요소를 점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내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든 행정적 중심지인 감영이 위치한 지역이 출판에서도 중심지였다. 강원도에서도 강원감영이 자리하였던 원주에서 90종의 책판이 조사되어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다. 감영이 위치한 곳은 사대부가 많고, 그만큼 서적간행의 필요 조건인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구역상 대응을 형성하고 있던 강릉이 49종, 춘천이 14종의 책판이 조사되었다. 철원에서 15종, 간성에서 12종, 삼척과 정선에서 각각 9종의 책판이 조사되었다. 강릉은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인 울곡(栗谷) 이이(李珣)를 배출한 영동 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원과 향교가 발달하여 교육에 필요한 서적의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춘천의 경우는 도호부로서 영서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감영이 설치된 후 문학서적의 간행활동이 좀 더 활발하여졌고, 유학서적의 간행이 두드러져 보인다. 춘천에는 문암서원을 중심으로 퇴계 이황을 배향한 남인 학맥과 도포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 학맥이 공존하였다. 후기에 들어와서는 화서 이항로의 사상을 계승한 위정척사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의 학맥은 수제자 유중교를 통하여 춘천 남면 가정리의 가정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정리는 고흥유씨 부정공파의 세거지로서 화서 이항로의 제자인 유중교·유인석 등이 이곳에 살면서 춘천 유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이유로 조선후기 화서학파의 사상을 전파하는 서적을 간행하는 등 출판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유학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다. 간성의 경우 영동문화권에 있고 강릉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 강릉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 서적간행에서도 같은 성향을 띤 것으로 보인다. 삼척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 인접해 있어 경상도 지역의 활발한 출판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선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부터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정권이 안정되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서적의 간행이 주를 이루었다. 전통적으로 평평한 전답이 별로 없고, 화전에 의존했던 정선의 농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서적의 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에 편입된 평해나 울진의 경우에 서원이 번성하던 조선후기에 서적간행이 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과 연관된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울진의 지식문화는 폭넓은 지식인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운

제5절 개신교

1. 개요

조선의 개신교 전도는 1832년 7월 17일 네덜란드 선교회의 칼 구즈라프(karl Gutzlaff) 선교사가 군산에 들어와 장산곶 근해 백령도 섬을 거쳐 군산항에서 약 30일가량을 체류하였고, 1866년 8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Thomas, Robert Jermain) [1840~1866]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에 승선하여 입국했지만,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순교하는 바람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토머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 첫 순교자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기독교 사건만 하더라도 천주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정약용 형제들이 귀양을 가고 황사영이 순교를 당한 신유박해(1801) 사건을 비롯하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병인양요(1866) 사건들을 들 수 있다.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전래된 것은 1884년 9월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알렌 선교사가 조선 조정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공의(公醫) 신분으로 입국한 것이 최초이다. 고종황제의 윤허를 얻어 정식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내한한 미국 감리회 소속 아펜젤러 목사와 스크렌튼,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였다. 아펜젤러는 교육사업을, 스크렌튼은 의료사업을 하기로 하고 조선에 입국하였다. 결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조선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입국 이후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여러 루트를 타고 조선